

4주차

新수능 舊내신 '소설교육론'

성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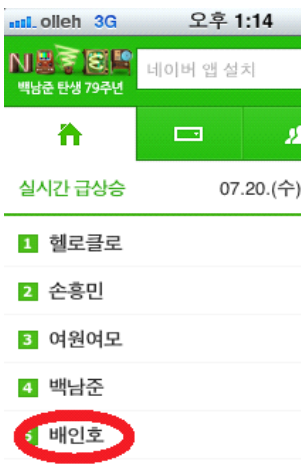
수험 번호

안녕하세요.
국어 강사 배인호입니다.

16~18시즌에는 2만명,
올해부터는
학생 인증이 된 경우만 자료를 제한적으로 드렸지만,
별써 2000명이 넘는 현장 강의 / 온라인 라이브와
지속적인 자료를 구독하여 받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실거라 생각하지만,
다시 한 번 제가 드리는 말씀의 무게감을 위해,
제 소개를 간략히 드리면,

인강 시작, 센세이션을 일으켜
신인 강사가 1개월 만에 소속사 매출의 70%,
1타급의 인지도를 갖게 됩니다.



강사가 실점 5위를 했을 정도 (깨알같이 Son! 2위)

사실 신인 강사가 저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남들과 다른 관점과 경험과 준비로 '평가원'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 당시 서울대 국어교육과 수업은
1. 우리나라 국어 교육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으신 교수님
 2. 평가원 임용된 평가원 연구 교수님 (현재 출강 불가)
 3. 석박사 연구 및 학계 소장학파

특히 저는 평가원 교수님들 수업을 직접 들으며
일반 전공자들조차도 쉽게 이해하기 힘든

현재 수능 출제와 관련된 원칙을 게시한 시작이자,
가장 영향력 있는 공문서인 '출제매뉴얼'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할 수 있었습니다.

(출제매뉴얼 쓰신 세 분의 교수님 수업을 모두 듣거나 출제매뉴얼
관련한 전공지식/의견을 직접 여쭙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인 평가원
그리고 그 중심에는 평가원 임용된 교수님과
그 교수님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집단 지성을 이루는
교수님 집단이 있고,

저는 참 운이 좋게, 그 교수님들 견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많은 학생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매주, 최소 2주 1회 이상 파이널
과정까지 지속적으로 칼럼을 올려, 여러분 국어 학습
방향성을 잡아드리려 합니다.

때때로 내용이 무게 있으니, 가급적 출력하여,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다음 지문을 나름 시간을 충분히 쓰되, 15분
이상 넘기지 말고 풀고, 다음의 해설로 갑니다.

* 확인 사항

- 본 교재는 Semester I 시론, 고전시가론, 소설론 등의 문학 원론 학습 Base를 전제합니다.
- 본 교재는 배인호 초격차 국어 FINAL I 3주차 수업을 전제합니다.
- 고1~2수준의 기초 개념이 약한 경우 수업 자체가 힘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념 보충 커리를 신청하여 꼭 병행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설 접근 사고 과정

1st 지문을 나름대로 읽는다. 최대한 지문에 있는 많은 정보를 기억하려 한다.

2nd 문제를 읽고 선지를 본다.

4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상징적 배경을 통해 갈등이 해소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3rd 지문에

①상징적 ②배경 ③갈등 ④해소 있는지 확인하고
 ⑤상징적 배경을 통해 ⑥갈등해소가 되었는지
 ⑦ 그리고 암시로 표현되었는지 확인합니다.

4th 이어지는 나머지 선지들도 그렇게 확인 하되, 기억 속에 있으면 판단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고가 꼬이면 또 발췌독/확인하느라 상당한 시간을 소비합니다.

많은 학생들은 기출 분석을 위과 같이 합니다. 생각해봅시다.

상징적 배경이 있는지 정보 확인하고
 그래서 갈등해소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능력이
 학생의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될까요?

우리가 연애를 할 때, 친구와 사귄 때, 상대방이 어떤 표현법을 쓰는지를 집중하나요? 아니면 그 사람의 감정

혹은 그 사람이 내게 하려하는 말에 집중을 하나요?

#1. '소설'에서의 정보처리 능력

소설교육의 목표

“

〈소설〉

...소설은 **현실의 삶**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

〈소설 교육〉

...삶과 현실에 대한 심화된 체험...

...문학적 지식을 많이 아는 것 보다는 그것을 이용하여 작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감상하여 그것을 내면화하는데 까지 나가야 한다...

...작품 속 삶이 자신의 생체험으로 전환되어 **가치관을 변화시키며, 인간의 삶에 대한 총체적인 체험**을 하도록 돕는다...

”

〈최병우〉 『국어교육학 사전 428~432,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위와 같은 평가원 오피셜이 와닿지 않는 이유는 대중의 통념이 변화하는 속도 때문입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바보야?’ 라고 반문하지만,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맞는 경우도 있지만 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도,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미친 높 취급을 당했지만, 이 시대의 시대정신은 그들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있어서, 우리는 한 차례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바보야?’ 가 아닙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한차원 높은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와 여지가 많다’입니다.

개화기, 사진을 찍으면 영혼이 빠져나간다고 믿었듯이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문학 정보처리’에 얽매어 위와 같은 문제 접근을 합니다.

근본부터 고쳐야합니다.

특히 문학 원론의 초반부 교재 / 수업을 활용하여 기존 접근법의 한계를 다시 한 번 느끼고, 최근 평가원 기출이 가지고 있는 흐름을 잡으시길 바라며, 배인호 초격차 국어 파이널 소설론. 시작합니다.

2014학년도 6월 B형 41~43 풀이시간 :

풀이 전 이해도 : 수업 후 이해도 :

친대를 받아도 얻어맞는 것보다는 낫다! 그도 그럴 것이다. 미친 채하고 떡목판에 었드려진다는 씬으로 미친 채하고 어리광 비슷한 수작을 하거나, 스라소니 행세를 하거나 하여, 어쨌든 저편의 호감을 사고 저편을 웃기기만 하면 목전에 닥쳐오는 뽀박은 면할 것이다. 속으로는 요놈 하면서라도 얼굴에만 웃는 빛을 띠면 당장의 급한 욕은 면할 것이다. 공포(恐怖), 경계(警戒), 미봉(彌縫), 가식(假飾), 굴복(屈服), 도회(解悔)*, 비굴(卑屈)…… 이러한 모든 것에 숨어 사는 것이 조선 사람의 가장 유리한 생활 방도요, 현명한 **처세술**이다. 실상 생각하면 우리의 이러한 **생활 철학**은 오늘에 터득한 것이 아니요, 오랫동안 **본건적** 성장과 관료전제 밑에서 더께가 앉고 굳어 빠진 껍질이지마는, 그 껍질 속으로 점점 더 파고들어 가는 것이 **지금의 우리 생활**이다.

“어떻든지 그저 내지인과 동등한 대우만 해 주면 나중엔 어찌 되든지 살아갈 수 있겠소.”

청년은 무엇에 쫓겨 가는 사람처럼 차 안을 휘휘 둘러다 보고 나서 목소리를 한층 낮추어서 다시 말을 잇는다.

“가령 공동묘지만 하더라도 내지에도 그런 법률이 있다 하면 싫든 좋든 우리도 따라가는 수밖에 없겠소. 하지만 우리에게도 또 우리의 유포이 있지 않습니까? 대관절 내지에도 그런 법이 있나요?”

의외에 이 장돌뱅이도 공동묘지 이야기를 꺼낸다. 나는 아까 형님한테 한참 설법을 듣고 오는 길에 또 이러한 질문을 받고 보니, 언제 규정이 된 것이요 어떻게 시행하라는 것인지는 나로서는 알고 싶지도 않고, 그까짓 것은 아무렇게나 상관없는 일이지마는, 아마 요사이 경향에서 모여 앉으면 께들 문젯거리, **화젯거리**가 되는 모양이다. 나는 한번 께께 웃어 주고 싶었으나 그리할 수는 없었다.

“일본에도 공동묘지가 있다우.”

나 역시 누가 듣지나 않는가 하고 아까부터 수상쩍게 보이던 저편 뒤로 께께한 구석에 글예를 한 동 두른 모자를 쓴 채 외투를 뒤집어쓰고 누웠는 일본 사람과, 김천서 나하고 같이 오른 양복쟁이 편을 둘러다 보았다. 나의 말이 조금이라도 총독정치를 비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중에서 무슨 오해가 생길지 그것이 나에게는 염려되는 것이었다.

“정말 내지에도 공동묘지가 있어요? 하지만 행세하는 사람야 좀 다르겠소?”

“그야 좀 다르겠지만, 어떻게든 일본에서는 주로 화장을 지내기 때문에 타고 남은…… 아마 목구멍 빠라든가를 갖다가 묻고 목패든지 비석을 세운다우. 그러지 않아도 살아 있는 사람도 터전이 좁아서 땅 조각이 금 조각 같은데, 죽는 사람 마다 넓은 터전을 차지하다가 이 세상에는 무덤만 남고

말지 않겠소, 허허허.”

나는 이러한 소리를 하면서도 묘지를 간략하게 하여 지면을 축소하고 남은 땅은 누구의 손으로 들어가고 마누 하는 생각을 하여 보았다.

“그리구서니 자기의 부모나 처자를 죽었다구 금세루 살라야 버릴 수가 있습니까? 더구나 대대로 내려오는 제 집 산소가 지를.”

이 사람은 나의 말이 옳다는 모양으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 서도 그래도 반대를 한다.

“화장을 지낸다가루 상관이 뭘겠소. 예전에 애급이라는 나라에서는 왕후장상의 시체는 방부제를 쓰고 나무 관에 넣은 시체를 다시 석관까지에 튼튼히 넣어서 피라미드라는 큰 굴 속에 묻어 두었지만, 지금 와서는 미이라밖에는 되지 않고 만 것을 보면 죽은 송장에게 능라주의(綾羅紬衣)*를 입히고 백 평, 천 평 되는 땅에다가 아무리 굳게 파묻기로 그것이 무엇이든 말이오. 동상을 세우면 무얼 하고 송덕비를 세우면 무엇에 쓴다는 말이오.”

내 앞에 앉았는 장꾼은 무슨 소리인지 귀에 자세히 들어오지 않는 모양이다.

“네에, 그런 것이 있어요?”

하고 멀거니 앉았다.

“하여간 부모를 생사장제(生事葬祭)에 예(禮)로써 받들어야 할 거야 더 말할 것 없지마는, 예로 하라는 것은 결국에 공경하는 마음이나 정성을 말하는 것 아니겠소? 그러니 공동묘지 법이란 난 아직 내용도 모르지마는, 그것은 별문제로 치고라도, 그 근본정신은 생각지 않고 부모나 선조의 산소 치레를 해서 외화(外華)나 자랑하고 음덕(蔭德)이나 바란다는 것도 우스운 수작이란 것을 알아야 할 거 아니겠소. 지금 우리는 공동묘지 때문에 못살게 되었소? 염통 밑에 쉬스는 줄은 모른다구, 께께랄* 것 다 께께라리고 뺏속에서 쪼르륵 소리가 나도 죽은 뒤에 파묻힐 곳부터 염려를 하고 앉았을 때 인지? 너무나 열빠진 늙둥이 수작이 아니요? 허허허.”

나는 형님에게 하고 싶던 말을 장돌뱅이로 돌아다니는 이 자를 붙들고 한참 푸념을 하였다.

- 염상섭, 「만세전」 -

* 도회: 재능이나 학식 따위를 숨겨 감춤.

* 능라주의: 비단옷과 명주옷.

* 께께라리다: 재물이나 기회 따위를 흐지부지 다 없애다.

4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징적 배경을 통해 갈등이 해소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 ② 냉소적 어조를 통해 세태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빈번한 장면 전환을 통해 인물들 사이의 긴장감을 고조하고 있다.
- ④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을 병렬하여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 ⑤ 인물들의 체험을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여 주제를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42. '공동묘지 법'과 관련한 인물들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공동묘지 법' 시행에 따른 '화장'의 제도화를 우려하고 있다.
- ② '나'는 '공동묘지 법'의 시행 전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③ '나'는 '공동묘지 법'과 관련한 자신의 발언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
- ④ '장돌뱅이'는 '공동묘지 법'의 목적이 묘지를 없애 집터를 넓히는 데 있다고 믿고 있다.
- ⑤ '장돌뱅이'는 '공동묘지 법'이 '애급'의 관습을 따른 것이라는 사실에 흥미로워 하고 있다.

4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1920년대 문학의 전개 과정에서, 염상섭은 개인의 발견과 현실 인식이라는 소설의 근대적인 특성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일인칭 시점을 적용한 소설을 통해 개인의 내면을 드러내는 방식을 모색하여, 개성의 표현으로서의 문학에 대한 인식을 구체화하였다. 나아가 그는 생활 현실에 근거한 문학으로 관심을 확장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문예는 생활의 기록이요, 흔적이요, 주장이다. 생활에 대한 염상섭의 새로운 인식은 생활의 표현을 통해 삶의 문제를 총체적인 시각에서 조망하려는 근대 문학의 정신에 접근하고 있다.

- ① 시속의 '처세술'에 대해 성찰하여 평가한 점을 통해, 생활의 문제에 대한 작가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② '생활 철학'을 터득하려는 개개인의 의지를 옹호한 점을 통해, 개인의 발견에 관한 작가의 의식을 이해할 수 있겠군.
- ③ '지금의 우리 생활'을 '불건적' 의식과 문화에 견주어 문제 삼은 점을 통해, 삶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조망하려는 작가의 시각을 엿볼 수 있겠군.
- ④ 일상적 관심사로 오르내리는 '화셋거리'를 이야기한 점을 통해, 생활의 흔적을 기록하려는 작가의 노력을 살필 수 있겠군.
- ⑤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나'가 서술하도록 설정한 점을 통해, 개성을 표현하는 문학의 방식을 모색하는 작가의 관심을 찾아볼 수 있겠군.

문학 '서사' 장르 정보처리공식
(feat. 평가원의 관점觀點)

- 주제 : 서사 줄거리
- 서사 구성하는 사건, 갈등, 장면 + 분위기/상황
- 인물(=성격) + 내면심리 파악이 핵심
- 특이한 소재, 특이한 전개방식, 특이한 배경

***첫부분 인사배 setting 잡기
*인물多 주인공 서사에 집중
*최근 상호텍스트성을 한 작품 내의 대칭 구조에 집중시킴
*정보량 터질수록, 위의 정보가치 높은 내용 처리 필요

*서사 교육 목표 : 삶의 총체적 이해 + 삶의 고양
*결국 우리 삶의 이야기, 간접 체험
*서사 장르 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삶이 고양되길 바람
*서사 장르 감상하며 뭔가 느끼면 = 100점 줌
*그렇다면? 일단 인물 내면 파악, 사건/갈등 원인 및 장면 상황 파악, 전반적 줄거리 파악.
*주제는 뻔하다.

문학 교육, 소설 교육의 목표에 따라 우리는

- ❶ 삶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해야합니다.
 - ❷ 삶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위해서는 인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제 경험을 말씀 드리려 합니다.

도시에서 태어났지만 시골에서 자란 '인호'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서열도, 과시도, 무엇도 없는 '자연'이 있었고,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와는 친구지만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거리'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학교는 살벌해졌습니다. 신체 발달이 진행되고, 2차 성징이 빨리 온 친구들의 '물리력'은 강해졌습니다. 옹고 그림으로 옹고 그림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힘'과 '싸움'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기 시작합니다.

'인호' 힘을 키우기 위해, 싸움을 잘하기 위해 매일 푸시업 1000개, situp 1000개, 버피 1000개를 합니다. 1년이 지나 중3이 되자, 더 이상 인호는 누구에게 맞지 않고, 오히려 때려줄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인호가 참지 못할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힘이 약한 친구들을 괴롭히는 무리가 생깁니다. '약한' 친구가 괴롭힘 당하는 것을 말려주는 과정에서 '양아치'와 다툼이 생겼지만, 힘이 약했던 '양아치'는 비굴할 뿐이었습니다. '인호'를 '무력'이 구원했습니다.

하지만, '양아치'는 더 이상 혼자서는 대응이 힘들자, '양아치들'로 집단 폭행을 행사합니다. 동시에 선생님이나 경찰에 알리면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사실 이런 일이 있기 전부터 수 차례 '인호'는 담임 선생님께 익명의 편지를 보냈으나, 그때 뿐입니다. 심지어 집단 폭행 직전까지도 '친구들끼리 싸웠'다며 반학생 모두를 때릴 뿐입니다. 아이들은 배울 것이 없습니다.

학교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었던, 집단 폭행 당한 '인호'는 바로 경찰서에 갑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인호'는 강력한 처벌 의지가 있었으나 '인호의 어머니'는 '인호'를 말립니다. '가해 학생을 보니 어머님 집 나가고, 아버지도 나가고, 할머니가 키우고 있다.' 라고 하시며.

사실 그 뒤로 인호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들이 언제 다시 집단폭행을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동시에, 이런 일이 이 세상에는 만연해 있다는 생각에. 그래서 인호는 공부를 해서, 검사가 되어, 범죄자를 때려잡아 감빵에 넣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호'에게 '법'이 구원이 되었던 순간입니다. (후략)

우리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요소를 고민해야겠지만, 우선은

①배경 입니다.

아마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인호는 이제 과거 공부를 할 것이고,

6.25 전후 세대라면 육사에 가려 했을 겁니다.

지금 세대라면, 아마 바로 돈 벌 생각을 했겠죠.

②인물의 성격입니다.

성격은 번역 과정에서 인물과 다른 개념처럼 받아들여졌지만, 사실은 둘은 같습니다.

그래서 인물 = 성격 요소
라고 정의하십시오.

그리고, '소설에서의 성격'은 '그 사람은 성격이 좋아'보다 훨씬 넓은 의미의 '성격'입니다.

나이, 직업은 물론이고, 배경, 환경을 모두 포괄합니다.

예를들면, 거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아마도 성격이 거칠 것이라 생각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은 의지적이고 진취적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형적 인물' vs '개성적 인물'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거친 환경에서 자라 성격도 거친 A가 있다면 A는 '전형적 인물'입니다. 하지만 거친 환경에서 자랐지만 성격이 거칠지 않은 B가 있다면 그것은 '개성적 인물'이라 합니다.

cf)위와 같은 개념에 대한 기반은 개념 기초 보충 영상 신청하여 수강 바랍니다.

③인물의 내면 심리입니다.

인물의 내면 심리 즉, 인물의 생각은, 성격을 구성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고, 생각 그 자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인물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단서가 됩니다.

④사건, 갈등, 장면 그리고 분위기/상황

이렇게 배경과 인물이 세팅이 되면, 그 인물은 한 장면 장면을 만들어내면서, 그것이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그 사건들은 결국 갈등으로 이어지는데, '갈등'은 소설의 핵심입니다. 단, 사건 갈등 장면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아도 수능 문제 풀이에 지장은 없습니다만,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개념 설명 잠시 들어갑시다.

장면은 scene, 즉, 좀 더 순간적인 개념이고

사건은 event, 즉, 좀 더 지속적인 개념이며

갈등은 葛藤 conflict, 즉, 더 더 지속적인 개념인데

<장면>
매 순간 순간을 장면으로 보아도 무방하지만,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의미가 명확히 부여되기 전 단계를 의미하며

<사건>
장면들이 이어지며, 맥락을 만들어냅니다. 즉, 인물, 배경, 이어지는 장면에, 이어지는 사건들이 여의 의미가 부여되는 범위를 말하고

<갈등>
넉클 식물이 얽혀있는 한자어에서 온 단어이듯이 결국 우리 인생 그렇듯 '갈등' 그리고 '해소' 과정에서 얻어지는 깨달음이나 감동, 가슴의 울림이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갈등이 서사의 본질이라 보는 관점들이 많고, 이 '갈등'이라는 개념이 '극'적이라는 개념과 상당 부분 교집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문학 스펙트럼으로 나타내면 이런 느낌!

장면 **사건** **갈등**

⑤ 이렇게 갈등이 형성, 해소 되는 그 흐름에서 '서사(줄거리, story)'가 만들어지고,

①~⑤ 과정에서 우리는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합니다. 그 과정에서 인물에 공감/거리를 두기도 하고 내면화/타산지식 하기도 하면서 삶에 대한 고찰, 성찰, 가치관 형성, 삶의 깊이가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서사가 갖는 힘입니다. (드라마, 영화는 물론 누군가의 '썰' 폰다 모두...)

사건, 갈등, 장면 그리고 분위기/상황

이러한 도구를 정리하면? (암.기.적.용.필.수)

문학 '서사' 장르 정보처리공식
(feat. 평가원의 관점觀點)

1. 주제 : 서사 줄거리
2. 서사 구성하는 사건, 갈등, 장면 + 분위기/상황
3. 인물 (=성격) + 내면심리 파악이 핵심
4. 특이한 소재, 특이한 전개방식, 특이한 배경

***첫부분 인사배 setting 잡기

*인물 多 주인공 서사에 집중

*최근 상호텍스트성을 한 작품 내의 대칭 구조에 집중시킴

*정보량 터질수록, 위의 정보가치 높은 내용 처리 필요

*서사 교육 목표 : 삶의 총체적 이해 + 삶의 고양

*결국 우리 삶의 이야기, 간접 체험

*서사 장르 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삶이 고양되길 바람

*서사 장르 감상하며 뭔가 느끼면 = 100점 줌

*그렇려면? 일단 인물 내면 파악, 사건/갈등 원인 및 장면 상황 파악, 전반적 줄거리 파악.

*주제는 뻔하다.

#2. '문학 지식'으로는 한계가 극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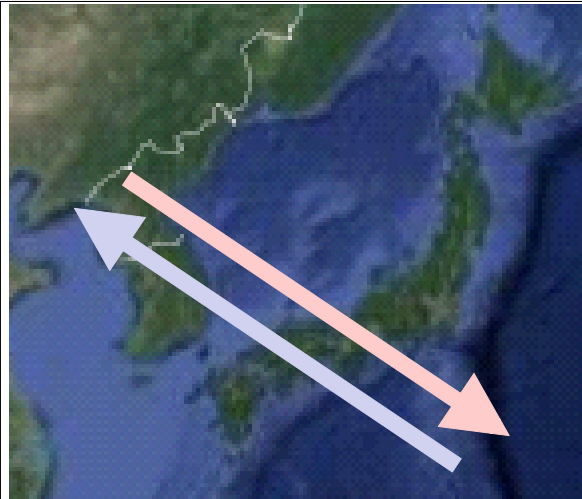
개념어 학습을 하거나

작품에 대한 지식 학습을 하려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수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염상섭의 만세전은 문학사적 가치가 큰데, 잠시 이 부분에 대한 개념/문학 지식 설명 후 왜 그것이 한계가 극명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고전 문학 vs 현대 문학
1894년 갑오경장 전후
2. 급격한 시대 정신의 변화
선사-고대-중세-(근세)-근대-현대
각 시대를 지배하는 시대정신이 있고, 우리는 그 시대정신을 이끄는 극소수의 혁신가가 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은 그 시대정신의 지배를 받는 존재이기도 함.
3. 상징 '철도', '여로' 소설
철도는 목적 자체가 수탈의 목적이 우선이었음.
이에따라, 철도의 방향성이 조선 ⇨ 일본인 경우가 대부분임.

물론, 수탈 vs 계몽(유학)이라는 해석의 충돌이 있기도 함. 어쨌든, 수탈의 수단이 되기도 했지만, 유학-계몽의 수단이 되기도 했기 때문. 특히 그 시절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나 유학길에 오를 수 있었음.
4. '만세전'의 문학사적 가치
사실성은 물론, 여로소설로서 그 시절 참신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보통은 조선 ⇨ 일본 방향의 여로 소설로 이광수의 '무정'과 같이 유학-계몽의 수단으로 보는 입장이나, 철도가 수탈의 수단으로 보는 줄거리가 대부분인 상황에, 반대 방향, 즉 일본 ⇨ 조선의 방향으로 여정을 구성하며, 주인공이 겪는 내면 심리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참신했고, 그 문학사적 가치가 높음.

일본에서 유학할 당시에 느끼지 못했던 조선인의 문제가
 P 일본에서 조선으로 도항하며 느끼고 (갈등)
 C 기차를 타고 가는 여정에서 원인을 찾고
 S 결국 해법을 모색 (해소)

#2. '문학 지식'으로는 한계가 극명

2-1. 작품 전체의 지식은 때로는 심각한 '오해석'을 만든다¹⁾

4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징적 배경을 통해 갈등이 해소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 ② 냉소적 어조를 통해 세태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빈번한 장면 전환을 통해 인물들 사이의 긴장감을 고조하고 있다.
- ④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을 병렬하여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 ⑤ 인물들의 체험을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여 주제를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1) 2020학년도 수능 대치 4대장 수능 오개념 논란

많은 학생들은, 아니 사실 많은 강사들은 ebs 연계가 중요하고, 그래서 작품 전체에 대한 지식이 도움이 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위의 작품 전체에 대한 지식 + 문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정답 선지를 골라보면?

- ① 상징적 배경 / 통해 갈등이 해소될 /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철도 = 상징적 배경 / 갈등 해소 = PCS 구조 /

맞죠? 작품 전체 지식이 있으면 1번 선지가 맞는 선지가 됩니다.

즉, 작품 전체 지식은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2. '문학 지식'으로는 한계가 극명 2-2 시간이 말도 안 될 만큼 부족하다²⁾

수능 출제 된 작품의 출제 확률을 보면 매년 50~70%가 ebs이기도 하지만, 50%는 기출입니다. 새로운 작품이 나올 확률보다, 기존 출제된 수능 기출 작품일 확률이 더 높습니다. ebs 작품도, 평가원 기출도 정리하기에는 시간이 매우 한정적입니다.

또한

#3. '문학'도 객관이다? 논리적 이다?

인간의 감정을 다루는 영역이 논리적일까?

그렇다면

- ③ 빈번한 장면 전환을 통해 인물들 사이의 긴장감을 고조하고 있다.

이 선지는 왜 틀렸나요?

장면 전환도 있고, 나와 청년 사이 논쟁도 있고, 그 논쟁은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쏟아 내는데?

2) 2020학년도 수능 대치 4대장 수능 오개념 논란

지문 근거 + 선지 판단 = 논리
 했더니 정답이 ③번 선지도 가능한데?

누구는 말 합니다. ‘빈번’하지 않아서
 그렇다면, 그 ‘빈번’의 기준은 누가 정하고, 논리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누구는 말 합니다. ‘고조’되지 않아서
 그렇다면, 그 ‘고조’의 기준은 누가 정하고, 논리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1. ‘소설’에서의 정보처리 능력

소설교육의 목표

‘삶의 총체적 이해’

그게 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것.

배우자 이제.

바꾸자 이제.

문학‘서사’장르 정보처리공식
 (feat. 평가원의 관점觀點)

1. 주제 : 서사 즐거리
2. 서사 구성하는 사건, 갈등, 장면 + 분위기/상황
3. 인물(=성격) + 내면심리 파악이 핵심
4. 특이한 소재, 특이한 전개방식, 특이한 배경

***첫부분 인사배 setting 잡기

*인물多 주인공 서사에 집중

*최근 상호텍스트성을 한 작품 내의 대칭 구조에 집중시킴

*정보량 터질수록, 위의 정보가치 높은 내용 처리 필요

*서사 교육 목표 : 삶의 총체적 이해 + 삶의 고양

*결국 우리 삶의 이야기, 간접 체험

*서사 장르 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삶이 고양되길 바람

*서사 장르 감상하며 뭉가 느끼면 = 100점 줌

*그럴려면? 일단 인물 내면 파악, 사건/갈등 원인 및 장면 상황 파악, 전반적 즐거리 파악.

*주제는 뻘하다.

적용해보겠습니다.

T+I.A (Topic + Information Architecture)

<만세전> ‘염상섭’

구조	표면적 정보⇒(문학적관습)⇒이면적 정보		
	인물(+내면심리), 사건/갈등/장면, 서사		
#1 인사배 set 문제제기 (주장)	조선 현실 비판 : 비굴 원인 분석 : 봉건적 잔재 *반어법 = 현명한, 유리한 처세술		
#2 원인 분석 (갈등)	‘공동묘지’		
	인물	가치관 - 태도	공통태도
	나	계몽 - 무관심	일본인
	청년	봉건 - 매우중요	두려움
	일본인	-	-
#3 해법 제시 (주장)	P 조선의 현실 C 봉건적 문제 S 계몽. 개화. 가치관 변혁		
주제 = 정보가치 높은 내용 + 구조 feat. 평가원 출제자			

결국 정리하면,

#1.

초반부 인사배 도입부에서
조선의 현실 인식 - 비판 - 원인 분석한 뒤
(내면 심리 서술로)

#2. #3.

기차 안에서 대화 장면을 통해
기존 조선인 - 봉건적 잔재 - 쓸데 없는 공동묘지
이야기나 하고 있음
나 - 개화 - 계몽 - 공동묘지 관심 없고 - 조선
현실 문제는 그렇게 아님 - 봉건 잔재 청산

하지만 공통적으로 일본에 대한 두려움이나, 신경쓰는
모습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을 읽어내는 것이 수능 소설 지문에서
우리가 할 일의 전부이고,

이렇게 읽어내는 것의 힘!!

당연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좌우 대립, 좌파 우파의 정치 갈등 속에,
이제는 남녀-젠더 갈등, 세대 갈등 속에 있습니다.

시대는 급변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었는데,
아직도 우리는 중세적 사상, 근대적 사상, 현대적
사상과 가치관에 얽매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쓰잘데 없는 것들에 더 이상 어그로 끌리지 말고
앞으로의 시대 정신에 맞는 능력과 가치관을 갖추고
시대를 선도하고 헤쳐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평가원에서 의도하는 문학교육 목표에 따른
감상인데,

사실, 딱, 삶의 총체적 인식
정도 까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T+I.A (Topic + Information Architecture)

<만세전> '염상섭'

구조	표면적 정보 ⇨ (문학적관습) ⇨ 이면적 정보																
	인물(+내면심리), 사건/갈등/장면, 서사																
#1 인사배 set 문제제기 (주장)	조선 현실 비판 : 비굴 원인 분석 : 봉건적 잔재 *반어법 = 현명한, 유리한 처세술																
#2 원인 분석 (갈등)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 colspan="3">'공동묘지'</th> </tr> <tr> <td>인물</td> <td>가치관 - 태도</td> <td>공통태도</td> </tr> <tr> <td>나</td> <td>계몽 - 무관심</td> <td>일본인</td> </tr> <tr> <td>청년</td> <td>봉건 - 매우중요</td> <td>두려움</td> </tr> <tr> <td>일본인</td> <td>-</td> <td>-</td> </tr> </table>		'공동묘지'			인물	가치관 - 태도	공통태도	나	계몽 - 무관심	일본인	청년	봉건 - 매우중요	두려움	일본인	-	-
'공동묘지'																	
인물	가치관 - 태도	공통태도															
나	계몽 - 무관심	일본인															
청년	봉건 - 매우중요	두려움															
일본인	-	-															
#3 해법 제시 (주장)	P 조선의 현실 C 봉건적 문제 S 계몽, 개화, 가치관 변혁																
주제 = 정보가치 높은 내용 + 구조 feat. 평가원 출제자																	

이렇게만이라도 잡아주세요.

그럼 이제 지문 갑니다.

친대를 받아도 얻어맞는 것보다는 낫다! 그도 그럴 것이다. 미친 체하고 떡목판에 엮드려진다는 셈으로 미친 체하고 어리광 비슷한 수작을 하거나, 스라소니 행세를 하거나 하여, 어쨌든 저편의 호감을 사고 저편을 웃기기만 하면 목전에 닥쳐오는 뺨박은 면할 것이다. 속으로는 요놈 하면서라도 얼굴에만 웃는 빛을 띠면 당장의 급한 욕은 면할 것이다. 공포(恐怖), 경계(警戒), 미봉(彌縫), 가식(假飾), 굴복(屈服), 도회(韜晦), 비굴(卑屈)..... 이러한 모든 것에 숨어 사는 것이 조선 사람의 가장 유리한 생활 방도요, 현명한 **처세술**이다. 실상 생각하면 우리의 이러한 **생활 철학**은 오늘에 터득한 것이 아니요, 오랫동안 **봉건적** 성장과 관료전제 밑에서 더께가 앉고 굳어 빠진 껍질이지 마는, 그 껍질 속으로 점점 더 파고들어 가는 것이 **지금의 우리 생활**이다.

#1. 조선 현실에 대한 비판 장면입니다.

친대를 받아도 얻어맞는 것보다는 낫다! 그도 그럴 것이다. 미친 체하고 떡목판에 엮드려진다는 셈으로 미친 체하고 어리광 비슷한 수작을 하거나, 스라소니 행세를 하거나 하여, 어쨌든 저편의 호감을 사고 저편을 웃기기만 하면 목전에 닥쳐오는 뺨박은 면할 것이다. 속으로는 요놈 하면서라도 얼굴에만 웃는 빛을 띠면 당장의 급한 욕은 면할 것이다. 공포(恐怖), 경계(警戒), 미봉(彌縫), 가식(假飾), 굴복(屈服), 도회(韜晦), 비굴(卑屈).....

여기까지 무슨 이야기지 싶다가?

상당히 부정적 인식, 단어들 나열 되고.

이러한 모든 것에 숨어 사는 것이 조선 사람의 가장 유리한 생활 방도요, 현명한 **처세술**이다. 실상 생각하면 우리의 이러한 **생활 철학**은 오늘에 터득한 것이 아니요, 오랫동안 **봉건적** 성장과 관료전제 밑에서 더께가 앉고 굳어 빠진 껍질이지 마는, 그 껍질 속으로 점점 더 파고들어 가는 것이 **지금의 우리 생활**이다.

이러한, 요약 지시를 하며, 지금까지의 서술이 어떤 의미인지 집약을 합니다.

하향식 바탕 정리하면

조선 - 아마도 조선 혹은 일제 배경에 공포, 가식, 굴복? 아 조선의 현실-조선인 비판이구나! 왜? 봉건적 잔재!

결국 정리하면 P 조선의 현실 : 공포, 비굴. C 이유 : 봉건적

즉, 조선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봉건적 원인이라고 이 장면을 쓴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현명한? 유리한? 이라는 긍정적 수식을 썼을까요? 긍정적이어서? 아니죠. 방어법!

이렇게 개념 자체를 확인하는게 아니라, 글 쓴 사람의도 파악, 의사소통의 결과 아! 이 사람은 이런 의도로 이런 내용과 구조와 표현을 하는구나!

이렇게 읽어갑니다. 계속...

“어떻든지 그저 내지인과 동등한 대우만 해 주면 나중엔 어찌 되든지 살아갈 수 있겠죠.”

청년은 무엇에 쫓겨 가는 사람처럼 차 안을 휘휘 둘러다 보고 나서 목소리를 한층 낮추어서 다시 말을 잇는다.

“가령 **공동묘지**만 하더라도 내지에도 그런 법률이 있다 하면 싫든 좋든 우리도 따라가는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우리에게도 또 우리의 유평이 있지 않습니까? 대관절 내지에도 그런 법이 있나요?”

의외에 이 **장돌뱅이**도 **공동묘지** 이야기를 꺼낸다. 나는 아까 **형님한테** 한참 설법을 듣고 오는 길에 또 이러한 질문을 받고 보니, 언제 규정이 된 것이요 어떻게 시행하라는 것인지는 나오서는 알고 싶지도 않고, 그까짓 것은 아무렇거나 상관없는 일이지만, 아마 요사이 경향에서 모여 앉으면 폐들 문젯거리 **화젯거리**가 되는 모양이다. 나는 한번 껄껄 웃어 주고 싶었으나 **그럴** 수는 없었다.

“일본에도 **공동묘지**야 있다우.”

나 역시 누가 듣지나 않는가 하고 아까부터 수상쩍게 보이던 저편 뒤로 킁킁한 구석에 금테를 한 동 두른 모자를 쓴 채 외투를 뒤집어쓰고 누웠는 **일본 사람**과, 김천서 나하고 같이 오른 양복쟁이 편을 둘러다 보았다. **나의** 말이 조금이라도 총독정치를 **비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중에서 무슨 오해가 생길지 그것이 **나에게는** 염려되는 것이었다.

“정말 내지에도 **공동묘지가** **있어요?** 하지만 행세하는 사람이 좀 다르겠죠?”

“그야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일본에서는 주로 화장을 지내기 때문에 타고 남은... 아마 목구멍 뼈라든가를 갖다가 묻고 목패든지 비석을 세운다우. 그러지 않아도 살아 있는 사람도 터전이 좁아서 땅 조각이 금 조각 같은데, 죽는 사람마다 넓은 터전을 차지하다가 이 세상에는 무덤만 남고 말지 않겠소, 허허허.”

나는 **기러한** 소리를 하면서도 묘지를 간략하게 하여 지면을 축소하고 남은 땅은 누구의 손으로 들어가고 마누 하는 생각을 하여 보았다.

“그리구서니 자기의 부모나 처자를 죽였나구 금세루 살라야 버릴 수가 있습니까? 더구나 대대로 내려오는 제 집 산소까지를.”

이 **사람은** **나의** 말이 옳다는 모양으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서도 그래도 반대를 한다.

“화장을 지낸다기루 상관이 뭐겠소. 예전에 **애급이라는** 나라에서는 왕후장상의 시체는 방부제를 쓰고 나무 관에 넣은 시체를 다시 석관까지에 튼튼히 넣어서 피라미드라는 큰 굴 속에 묻어 두었지만, 지금 와서는 미이라밖에는 되지 않고 만 것을 보면 죽은 송장에게 능라주의(綾羅紬衣)*를 입히고 백 평, 천 평 되는 땅에다가 아무리 굳게 파묻기로 그것이 무엇이런 말이오. 동상을 세우면 무얼 하고 송덕비를 세우면 무엇이 쓴다는 말이오.”

내 **앞에** **앉았는** **장꾼은** 무슨 소리인지 귀에 자세히 들어오지 않는 모양이다.

“네에, 그런 것이 있어요?”

하고 멀거니 앉았다.

#2. 젊은 장돌뱅이와의 대화입니다.
 사실, 청년 = 이 장돌뱅이 = 내 앞에 앉았는 장꾼은 같은 인물인데 자꾸 표현을 달리하니 얼핏 여러 인물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위의 인물들이 같은 인물인지 아닌지가 아닙니다.

인물	묘지 (가치관 - 태도)	공통태도
나	계몽 - 무관심	일본인 두려움
청년	봉건 - 매우중요	
일본인	-	-

이와 같은 인물-내면심리-태도와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초반부 인사배 세팅 즉 P 조건의 현실 : 공포, 비굴. C 이유 : 봉건적에서

나와 다른 조선인들에 대한 비교를 읽어야 합니다.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서사 요소

이것이 있는 작품도 있고 아닌 작품도 있지만, 최근 평가원에서 상당히 즐겨 구성하는 서사 요소로서, 여기서는 **공동묘지**

최근 기출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구조로

특히 2020은 거의 100%인데,

2020-6월 토지에서는 **습격**

2020-6월 조용전에서는 **입몽-각몽-예지몽-예견사건**

2020-9월 옹고집전에서는 **송사**

2020-9월 자서전들 쓰십시다에서는

의뢰인-작가 갈등 → 내적-외적 갈등

현 수능의 변화 특이점인 2017학년도에서도

2017-수능 삼대에서는 **'돈' 부자 갈등**

와 같습니다.

즉, 서사 구조는

#1. P-C : 내면 심리(서술)

P 조건의 현실 : 공포, 비굴.

C 이유 : 봉건적

#2. 갈등 - 태도 (대화)

기존 조선인 : 봉건적 ⇨ 공동묘지 등 중요

나 : 계몽적 ⇨ 공동묘지 같은 걸 왜 신경써

공통 : 우리 둘다 조선인. 일본이 무서움

#3. 내면심리 (대화) S 해법 제시

P 조건의 현실 : 공포, 비굴. C 이유 : 봉건적

S 그딴 거 신경쓰지 말고 계몽! 개화 하자!

“하여간 부모를 **생사장제(生事葬祭)**에 예(禮)로써 받들어야 할 거야 더 말할 것 없지마는, 예로 하라는 것은 결국에 공경하는 마음이나 형성을 말하는 것 아니겠소? 그러나 공동묘지 법이란 난 아직 내용도 모르지마는, 그것은 별문제로 치고라도, 그 근본정신은 생각지 않고 부모나 선조의 산소 치레를 해서 외화(外華)나 자랑하고 음덕(蔭德)이나 바란다는 것도 **우스운 수작**이란 것을 알아야 할 거 아니겠소. 지금 우리는 **공동묘지** 때문에 못살게 되었소. **Q.P**통 밑에 쉬스는 줄은 모른다구, **갑살릴** 것 다 **갑살리고** **백속에서** **쪼르륵** 소리가 나도 **죽은 뒤에** **파묻힐** 곳부터 **염려를** 하고 **앉았을** 때 **인** **Q.P**리무도 **얼빠진** **늦둥이** 수작이 아니 **Q.P**허허.”

나는 형님께 하고 싶던 말을 **장돌뱅이**로 돌아다니는 이 자를 붙들고 **한참** **푸념을** 하였다.

비판.내면심리

이렇게 간단히
잡혔고... 역시나!

42. '공동묘지 법'과 관련한 인물들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공동묘지 법' 시행에 따른 '화장'의 제도화를 우려하고 있다.
- ② '나'는 '공동묘지 법'의 시행 전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③ '나'는 '공동묘지 법'과 관련한 자신의 발언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
- ④ '장돌뱅이'는 '공동묘지 법'의 목적이 묘지를 없애 집터를 넓히는 데 있다고 믿고 있다.
- ⑤ '장돌뱅이'는 '공동묘지 법'이 '애급'의 관습을 따른 것이라는 사실에 흥미로워 하고 있다.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사건 당연히 물었고

인물	묘지 (가치관 - 태도)	공동태도
나	계몽 - 무관심	일본인 두려움
청년	봉건 - 매우중요	
일본인	-	-

- 12 나의 태도. 관심 없음. 따라서 out
- 46 기존 조선인 태도. 유훈. 봉건질서 유지. 따라서, 새로운 제도에 부정적! out!
- 남는 것은?
- 공동된 태도인 '총독정치(일본)에 대한 두려움' 3 정답!

또한! 주제 집중해 주시면!

4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징적 배경을 통해 갈등이 해소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 ② 냉소적 어조를 통해 세태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빈번한 장면 전환을 통해 인물들 사이의 긴장감을 고조하고 있다.
- ④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을 병렬하여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 ⑤ 인물들의 체험을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여 주제를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 끝.

- ② 냉소적 어조를 통해 세태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주제 : 조선 현실 비판

그런데?

4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1920년대 문학의 전개 과정에서, **염상섭**은 개인의 발견과 현실 인식이라는 소설의 근대적인 특성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일인칭 시점을 적용한 소설을 통해 개인의 내면을 드러내는 방식을 모색하여, 개성의 표현으로서의 문학에 대한 인식을 구체화하였다. 나아가 그는 생활 현실에 근거한 문학으로 관심을 확장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문예는 생활의 기록이요, 흔적이요, 주장이다. 생활에 대한 염상섭의 새로운 인식은 생활의 표현을 통해 삶의 문제를 총체적인 시각에서 조망하려는 근대 문학의 정신에 접근하고 있다.

- ① 시속의 '치세술'에 대해 성찰하여 평가한 점을 통해, 생활의 문제에 대한 작가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② '생활 철학'을 터득하려는 개개인의 의지를 **옹호한** 점을 통해, 개인의 발견에 관한 작가의 의식을 이해할 수 있겠군.

주제 : 조선 현실 비판

그런데? 옹호? 바로 정답! 끝

- ③ '지금의 우리 생활'을 '봉건적' 의식과 문화에 건주어 문제 삼은 점을 통해, 삶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조망하려는 작가의 시각을 엿볼 수 있겠군.
- ④ 일상적 관심사로 오르내리는 '화셋거리'를 이야기한 점을 통해, 생활의 흔적을 기록하려는 작가의 노력을 살필 수 있겠군.
- ⑤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나'가 서술하도록 설정한 점을 통해, 개성을 표현하는 문학의 방식을 모색하는 작가의 관심을 찾아볼 수 있겠군.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이어지는 지문 봅니다.

문학 '서사' 장르 정보처리 공식
(feat. 평가원의 관점 觀點)

1. 주제 : 서사 즐거리
2. 서사 구성하는 사건, 갈등, 장면 + 분위기/상황
3. 인물(=성격) + 내면심리 파악이 핵심
4. 특이한 소재, 특이한 전개방식, 특이한 배경

***첫부분 인사배 setting 잡기

*인물 多 주인공 서사에 집중

*최근 상호텍스트성을 한 작품 내의 대칭 구조에 집중시킴

*정보량 터질수록, 위의 정보가치 높은 내용 처리 필요

*서사 교육 목표 : 삶의 총체적 이해 + 삶의 고양

*결국 우리 삶의 이야기, 간접 체험

*서사 장르 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삶이 고양되길 바람

*서사 장르 감상하며 뭔가 느끼면 = 100점 줌

*그렇려면? 일단 인물 내면 파악, 사건/갈등 원인 및 장면 상황 파악, 전반적 즐거리 파악.

*주제는 전형적.

2010학년도 6월 모의고사 23~26번 풀이시간 :
풀이 전 이해도 : 수업 후 이해도 :

학교에 나가지 않으면 나는 5시에 ㉠컨베이어 앞을 떠날 수 없을 것이다. 선생님은 버스 정류장에서 내일은 꼭 학교에 나오라고 한다.

“우선 학교에 나와서 얘기하자.”

버스에 올라탄 선생님이 나를 향해 손을 흔든다. 선생님의 손 뒤로 공장 굴뚝이 울퉁울퉁하다. 처음으로 공장 속에서 사람을 만난 것 같다. 버스가 떠난 자리에 열일곱의 나, 우두커니 서 있다. 선생님의 손길이 남아 있는 내 어깨를 내 손으로 만져 보며.

다음날 교무실로 나를 부른 선생님은 내게 반성문을 써 오라 한다.

“하고 싶은 말 다 써서 사흘 후에 가져와 봐.”

㉡반성문을 쓰기 위해 학교 앞 문방구에서대학 노트를 한 권 산다. 지난날, 노조 지부장에게 왜 외사촌과 내가 학교에 가야만 하는가를 뭐라구 뭐라구 적었듯이 이제 선생님에게 학교 가기 싫은 이유를 뭐라구 뭐라구 적는데 어느 참에서 마음속의 이야기들이 왈각 쏟아져 나온다. 열일곱의 나, 쓴다. 내가 생각한 도시 생활이란 이런 것이 아니었으며, 내가 생각한 학교 생활도 이런 것이 아니었다고.

나는 주산 놓기도 싫고 부기책도 싫으며 지금은 오로지 마음속에 남동생 생각뿐으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서 그 애와 함께 살고 싶다고. 반성문은 노트 삼분의 일은 되게 길어진다.

[A] 반성문을 다 읽은 선생님이 말한다.

“너 소설을 써 보는 게 어떻겠냐?”

내게 떨어진 소설이라는 말. 그때 처음 들었다. 소설을 써 보라는 말.

그는 다시 말한다.

“㉢주산 놓기 싫으면 안 놓아도 좋다. 학교에만 나와. 내가 다른 선생들에게 다 말해 놓겠어. 뭘 하든 니가 하고 싶은 걸 하자. 대신 학교는 빠지지 말아야 돼.”

그는 내게 한 권의 책을 건네준다.

“내가 요즘 최고로 잘 읽은 소설이다.”

표지에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고 써어 있다.

(중략)

최홍이 선생님. 이후 나는 그 선생님을 보러 학교에 간다. 어색한 이향*으로 마음에 가뒀었던 그리움들이 최홍이 선생님을 향해 방향을 돌린다. 열일곱의 나, 늘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가지고 다닌다. 어디서나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읽는다. 다 외울 지경이다. 회재언니가 무슨 책이냐고 묻는다.

[B]

“소설책.”

소설책? 한번 반문해 볼 뿐 관심 없다는 듯이 회재언니가 고개 떨군다. 최홍이 선생님이 마음 안으로 가득 들어찬다.

정말 주산을 놓지 않아도 주산 선생님은 그냥 지나간다. 부기 노트에 ㉣대차대조표를 그리지 않아도 부기 선생은 탓하지 않는다.

주산 시간에 국어 노트 뒷장을 펴고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옮겨 본다.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옮겨 보았다. 아버지는 난쟁이었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았다.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 영호, 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한 다섯 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다.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는 ‘다섯 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다.

[C]

……이제 열일곱의 나는 컨베이어 위에서도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옮기고 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나 우리 다섯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고. 단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이 없다,고.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고.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도 같았다,고.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고. 그런데도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잘 참았다,고.

그가 소설책을 써 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 대신 시를 써 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했으면 나는 시인을 꿈꾸었을 것이다. 그랬었다. 나는 꿈이 필요했었다. 내가 학교에 가기 위해서, 큰 오빠의 가발을 담당하게 빗질하기 위해서, ㉤공장 굴뚝의 연기를 참아 낼 수 있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소설은 그렇게 내게로 왔다.

십이월 중순이 지날 때까지 나는 한경신 선생이 보낸 편지를 가방에 넣고 다녔다. 가끔 편지를 꺼내 전화는 오후 5시 30분 이후부터 9시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대목을 읽어 보곤 했다. 842-xxxx. 몇 번 편지를 꺼내 읽고 다시 넣고 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전화번호를 다 외우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끝내 전화하지 못했다. 시간은 자꾸 흘러 한경신 선생이 학교에 왔으면 하는 기간인 12월 초와 중순을 지나갔다. 이제는 방학을 했겠구나, 싶었을 때 가방에서 편지를 꺼내 서랍에 넣으면서 그 학교를 떠난 해수를 헤아려 봤다. 떠난 지 십삼년이다. 이제는 그때의 일들이 나에게겐 객관화가 되어 있으려니 했다.

글을 쓰기로 마음을 먹었을 땐 나는 그 시절을 다 극복한 것도 같았다. 그래서 그 시절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한 자세히 써 보기로 했다. 그때의 기억을 복원시켜 내 말문을 띄워 보고 내 인생의 폐문 앞에서 끊겨 버린 내 발자국을 연결시켜 줘 보기로.

-신경숙, 외판 방 -

*이향: 고향을 떠남.

23. ㉠~㉣에 대한 '나'의 심리적 태도가 다른 하나는? [1점]

- ① ㉠ ② ㉡ ③ ㉢
- ④ ㉣ ⑤ ㉤

24. 다음은 작가가 남긴 창작 노트의 일부이다. 이 노트의 내용이 [A], [B]에 실현된 양상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시제의 변화 ㉠
- 문단 나누기의 효과? ㉡
- 간결한 문장 위주로 쓸 것 ㉢
- '나'를 부르는 방식에 변화를 줄 것 ㉣
- 대화보다는 심리 묘사 위주로 ㉤

- ① ㉠은 [A]에서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이야기 전개 속도를 높이는 식으로 실현되었군.
- ② ㉡는 [A]에서 문단 사이에 여백을 주어 인과 관계를 명료화 하는 식으로 실현되었군.
- ③ ㉢는 [B]에서 간결한 문장을 주로 사용하여 과거를 담담한 어조로 서술하는 식으로 실현되었군.
- ④ ㉣는 [B]에서 서술자가 스스로를 가리키는 방식을 달리하여 내적 분열을 강조하는 식으로 실현되었군.
- ⑤ ㉤는 [B]에서 대화를 최소화하여 사건의 긴장감을 고조하는 식으로 실현되었군.

25. [C]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의 고단한 생활을 간접적으로 보여 준다.
- ② '나'가 소설 쓰기를 배워 가는 과정을 보여 준다.
- ③ '나'가 창작의 어려움을 깨달아 가는 모습을 보여 준다.
- ④ '나'가 소설을 옮겨 적으며 스스로 위안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 ⑤ '나'가 난쟁이가 쓰아 올린 작은 공 에 대해 보이는 애착을 구체적인 장면으로 보여 준다.

26. [D]는 작품 창작의 동기를 작품에 직접 드러내고 있다. <보기>에서 [D]와 성격이 유사한 것은?

— < 보 기 > —

목중: 오랜만에 나왔으니 예전에 하던 소리나 한번 해 보자. 어 어 어 아.

음중: (뒤에서 달려 나와 탁 치며) 야, 이놈아!

목중: 이크, 이게 웬 일이나. 어느 광대 놈이 나오자마자 사람부 터 쳐.①

음중: 송아지 풀 뜯어 먹고 울 듯이 '어어어 아' 하면서 나왔나 니 거 무슨 말이야?②

목중: 내가 나오기는 부모 배 밖에 이제 나왔다고 한 것이 아니라 놀이판에 나오길 이제 나왔단 말이야.③

음중: 옳지. 그럼 우리 여기 모인 양반들에게 박수 한번 크게 받게 제대로 놀아 보자.④

목중: 너 그러나 저러나 그 쓴 게 뭐냐?

음중: 쓰긴 내가 뭘 써. 일수(日收)를 써 월수(月收)를 써?⑤

— 양주별산대놀이 개작 —

T+I.A (Topic + Information Architecture)

<외판 방> '신경숙'

구조	표면적 정보⇒(문학적관습)⇒이면적 정보 인물(+내면심리), 사건/갈등/장면, 서사
#1 인사배 set (도입)	나 : 열일곱. 야간고등학교. 낮 공장. 태도 : 공장 안 처음으로 '사람'=선생님 선생님 : 그 시대에 너무나 좋은 선생님
#2 반성문 소설 인생시작 (중략)	'반성문 - 소설' 선생님 : 하고 싶은 이야기 해봐 나 : 알각 쏟아 냄 선생님 : 소설 한 번 써 봐. 난쏘공 나 : 소설. 내 인생의 시작
#3 소설 인생에 영향	희재언니 : 소설. 관심 없음 나 : 선생님의 배려. 소설. 난쏘공 필사 내 인생의 시작 = 꿈 = 소설
#4 인생 끝 그리고 인생시작	삶이 끊긴 지금 내 인생 시작이던 그 시절 떠올림
주제 = 정보가치 높은 내용 + 구조 feat. 평가원 출제자	

그 시절, 돈이 없었고,
공부는 해야하고,
열일곱, 학력도, 졸업장도, 교육도 필요하지만,
그걸 위해 돈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했던 시절

열일곱.
공장도 학교도 싫었던 나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
남동생하고 살고 싶지만,

열일곱.
학교, 직장을 준비해야 하는 나이.

살기 위해 꿈이 필요했던 내게,
선생님은 그 꿈을 만들어주었고

그것이 소설.
내 인생의 시작.

학교에 나가지 않으면 나는 5시에 ㉠ 컨베이어 앞을 떠날 수 없을 것이다. 선생님은 버스 정류장에서 내일은 꼭 학교에 나오라고 한다.

“우선 학교에 나와서 얘기하자.”

버스에 올라탄 선생님이 나를 향해 손을 흔든다. 선생님의 손 뒤로 공장 굴뚝이 울퉁울퉁하다. 처음으로 공장 속에서 **사람**을 만난 것 같다. 버스가 떠난 자리에 열일곱의 나. 우둔치니 서 있다. 선생님의 손길이 남아 있는 내 어깨를 내 손으로 **만져 보며**.

도입부.
전형적인 인사배 세팅. 선생님에 대한 내면심리. 태도.

배경
학교, 컨베이어.

성격
‘나’는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며, 낮에는 일 하는 구나

인물 - 태도
그런 내게 선생님의 존재는 처음으로 보는 ‘사람’
선생님이 떠난 여운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날 교무실로 나를 부른 선생님은 내게 **반성문을 써 오라** 한다.

“하고 싶은 말 다 써서 사흘 후에 가져와 봐.”

㉡ 반성문을 쓰는 **이유**를 학교 앞 문방구에서 대학 노트를 한 권 산다. 지난날, 노조 지부장에게 왜 외식촌과 내가 학교에 가야만 하는가를 뭐라구 뭐라구 적었듯이 이전 선생님에게 학교 가기 싫은 이유를 뭐라구 뭐라구 적는데 어느 참에서 마음 속의 **이야기들이** 왈칵 쏟아져 나온다. 열일곱의 나. 쓴다. 내가 생각한 **노조 생활이란** 이런 것이 아니었으며, 내가 생각한 학교 생활도 이런 것이 아니었다고.

나는 주산 농기도 싫고 부기책도 싫으며 지금은 오로지 마음속에 남동생 생각뿐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애와 함께 살고 싶다고. **반성문은** 노트 삼분의 일은 되게 길어진다.

[A] **반성문은** 다 읽은 선생님이 말한다.
“**너 소설을** 써 보는 게 어떻겠냐?”

내게 떨어진 **소설이라는** 말. 그때 처음 들었다. 소설을 써 보라는 말.

그는 다시 말한다.
“㉢ 주산 농기 싫으면 안 놓아도 좋다. 학교에 **만나와**, 내가 다른 선생들에게 다 말해 놓겠어. 뭘 하든 **니가 하고 싶은 걸** 하거라. 대신 학교는 빠지지 말아야 돼.”

그는 내게 한 권의 책을 건네준다.
 “내가 요즘 최고로 잘 읽은 소설이다.”
 표지에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고 써어 있다.

이어지는 흐름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서사 요소

여기서는 **반성문** ⇨ **소설**

아까 영상실 만세전에서는 **공동묘지**

2020-6월 토지에서는 **습격**

2020-6월 조웅전에서는 **입몽-각몽-예지몽-예견사건**

2020-9월 옹고집전에서는 **송사**

2020-9월 자서전들 쓰십시다에서는

의뢰인-작가 갈등 → **내적-외적 갈등**

현 수능의 변화 특이점인 2017학년도에서도

2017-수능 삼대에서는 **‘돈’ 부자 갈등**

사건/장면 : **‘소설’ = 인생의 시작**

드디어 내 인생의 시작. 소설.

선생님은 제게 ‘소설’이라는 삶의 시작을 주었습니다.

최홍이 선생님. 이후 나는 그 선생님을 보러 학교에 간다. 어색한 **이향**으로 마음에 가득했던 그리움들이 **최홍이** 선생님을 향해 방향을 돌린다. 열일곱의 나. 늘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가지고 다닌다. 어디서나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읽는다. 다 읽을 지경이다. **희재언니**가 무슨 책이냐고 묻는다.
 “소설책.”
 소설책? 한번 반문해 볼 뿐 관심 없다는 듯이 **희재언니**가 고개를 떨군다. **최홍이** 선생님이 마음 안으로 가득 들어찬다.

인물 - 태도

최홍이 선생님 : 드디어 이름을 부르기 시작.

내게 남다른 존재가 되었군요.

희재언니 : 소설? 관심없네요. 나를 알아주는 선생님에게 마음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시작. 소설.

정말 수산을 놓지 않아도 수산 선생님은 그냥 지나간다. 부기 노트에 **㉠대차대조표**를 그리지 않아도 부기 선생은 탓하지 않는다.
 주산 시간에 국어 노트 뒷장을 펴고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옮겨 본다.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옮겨 보았다. 아버지는 난쟁이었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놓았다.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옮기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 영호, 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한 다섯 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옮지 않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다.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는 ‘다섯 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다.
 ……이제 열일곱의 나는 컨베이어 위에서도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옮기고 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나 우리 다섯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고. 단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이 없다,고.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고.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도 같았다,고.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고. 그런데도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잘 참았다,고.

장면 - 난쏘공 필사

난쏘공을 필사하는 장면을 통해 화자 스스로의 인생을 돌아보고, 연결합니다.

그가 **소설책**을 꺼 보는 게 어땠겠느냐는 말 대신 지를 써 보는 게 어땠겠느냐고 했으면 나는 시인을 꿈꾸었을 것이다. 그랬었다. 나는 **꿈**이 필요했었다. 내가 학교에 가기 위해서, 큰 오빠의 가발을 담당하게 빗질하기 위해서, **㉡공장** 굴뚝의 연기를 참아 낼 수 있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소설은 그렇게 내게로 왔다.

장면/서술 - 소설로 내 인생의 시작

그 시절 꿈이 필요했던 내게 소설은 꿈이었고, 내 인생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지문 중략)

글을 쓰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나는 그 시절을 다 극복한 것도 같았다. 그래서 그 시절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한 자세히 써 보기로 했다. 그때의 기억을 복원시켜 내 말문을 띄워 보고 내 인생의 폐문 앞에서 **끊겨 버린 내 발자국을 연결시켜** 줘 보기로.

장면/서술 - 창작 동기

인생의 폐문. 끊겨버린 지금 내 인생과 그 시절 내 인생의 시작을 연결 지어보려 했다.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압도적 수능 국어 전문가.

백인호 초격차 국어 파일 1 3-4주차 문학 원론

23. ㉠~㉣에 대한 ‘나’의 심리적 태도가 다른 하나는? [1점]

- ① ㉠ ② ㉡ ③ ㉢
 ④ ㉣ ⑤ ㉤

과거 많이 출제된 유형입니다.
 요즘과는 유형이 조금 다르지만, 상당히 평가원 출제 의도 적용 연습에 도움이 됩니다.
 다시 한 번 전체 주제와

T+I.A (Topic + Information Architecture)

<외편 방> '신경숙'

구조	표면적 정보⇒(문학적관습)⇒이면적 정보 인물(+내면심리), 사건/갈등/장면, 서사
#1 인사배 set (도입)	나 : 열일곱. 야간고등학교. 낮 공장. 태도 : 공장 안 처음으로 '사람'=선생님 선생님 : 그 시대에 너무나 좋은 선생님
#2 반성문 소설 인생시작 (중략)	'반성문 - 소설' 선생님 : 하고 싶은 이야기 해봐 나 : 알락 쏘아 냄 선생님 : 소설 한 번 써 봐. 난쏘공 나 : 소설. 내 인생의 시작
#3 소설 인생에 영향	희재언니 : 소설. 관심 없음 나 : 선생님의 배려. 소설. 난쏘공 필사 내 인생의 시작 = 꿈 = 소설
#4 인생 끝 그리고 인생시작	삶이 끈긴 지금 내 인생 시작이던 그 시절 떠올림
주제 = 정보가치 높은 내용 + 구조 feat. 평가원 출제자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서사 요소

여기서는 **반성문 ⇨ 소설**

잡으면?

바로 답 나오네요. **㉡**반성문

나머지는 모두 화자의 처한 상황. 배경. 부정적.

하지만 **㉠**컨베이어(공장/노동) **㉢**주산(학교)

㉣대차대조표(학교) **㉤**공장굴뚝

과 달리 반성문으로 인생의 시작, 소설이 시작되었으니!

24. 다음은 작가가 남긴 창작 노트의 일부이다. 이 노트의 내용이 [A], [B]에 실현된 양상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시제의 변화	(a)
• 문단 나누기의 효과?	(b)
• 간결한 문장 위주로 쓸 것	(c)
• '나'를 부르는 방식에 변화를 줄 것	(d)
• 대화보다는 심리 묘사 위주로	(e)

자꾸 개념으로 읽으려 하는데
 개념은 주제로 좁히고 필요시 발췌독이라 했습니다.

① @는 [A]에서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이야기 전개 속도를 높이는 식으로 실현되었군.

개념

현재형 어미 (과거vs현재vs미래시제)

효과

⇒ 100% 사건지연. 시간지연

개념 학습을 했다면, 현재형 어미 유무 확인 전에 바로 개념으로는 무조건 틀렸다 판단할 수 있게끔 학습하셨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수업 접근법을 정확히 숙지 바랍니다.

② ⑥는 [A]에서 문단 사이에 여백을 주어 인과 관계를 명료화 하는 식으로 실현되었군.

개념+논리의 한계

①여백이 있고, ②소설을 쓰게 된 계기. 이유(원인)으로 보면 2번 선지는 맞는 선지입니다.

즉, 개념 + 논리적 접근을 하면 맞는 선지.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평가원 틀을 익히고 적용하세요.

③ ④는 [B]에서 간결한 문장을 주로 사용하여 과거를 담당한 어조로 서술하는 식으로 실현되었군.

정답 = 주제 = 작가/출제의도

'간결한' 문장을 판단하는 기준?

예전의 제 수업에서는 평가원 기출 개념어 전수 조사를 통해 한 문장에 S+V 질 구조가 3개 이하면 간결하다고 기준을 잡아드렸으나, 그 시절의 접근법입니다.

③ ㉔는 [B]에서 간결한 문장을 주로 사용하여 과거를 담담한 어조로 서술하는 식으로 실현되었군.

정답 = 주제 = 작가/출제의도

중요한 것은

작가/출제의도 = 화자의 정서.내면심리

공감해 내길 위한 것입니다.

열일곱.

우리의 지금.

지금 우리의 고민과 괴로움.

그 답이 여기 있지 않았을까.

답이 없더라도 최소한 우리는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화자를 보며, 우리의 아픔을 위로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㉔번 선지의 여백의 의도도, [B]의 수 많은 표현도 결국은?

화자의 정서.내면심리

표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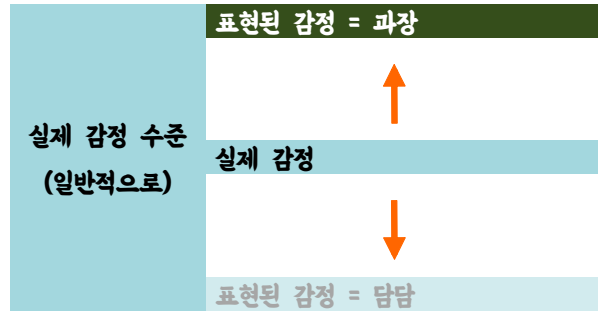
너무나 괴롭던 열일곱
인생의 시작

그러면 그 사건은 매우 감동스럽고, 감정적, 정서적, 태도에서 굉장히 유의미해야하지만.

화자는 어떠한 ‘감정, 정서’를 직접 드러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최홍이 선생님. 이후 나는 그 선생님을 보러 학교에 간다. 어색한 이향*으로 마음에 가워졌던 그리움들이 최홍이 선생님을 향해 방향을 돌린다. 열일곱의 나, 늘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가지고 다닌다. 어디서나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읽는다. 다 외울 지경이다. 회재언니가 무슨 책이냐고 묻는다. “소설책.” 소설책? 한번 반문해 볼 뿐 관심 없다는 듯이 회재언니가 고개를 떨군다. 최홍이 선생님이 마음 안으로 가득 들어찬다.

개념 : 담담하다



즉,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수준의 감정선을

매우 높게 표현하면 과장
매우 낮게 표현하면 담담
하다고 합니다

예를들면, 별로 아프지도 않은데, ‘아파 죽어!’ 라고 하면 과장

아파 죽을 것 같은데 ‘그냥 그래’ 라고 하면 담담

인생 시작점이니. 저렇게 아무런 감정조차 표출하지 않았다? 담담하다.

개념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글의 주제 + 구조인

화자의 내면심리에 초점을 두어 정확히 표현한 3번 선지가 가장 적절할 수 밖에 없습니다.

④ ㉔는 [B]에서 서술자가 스스로를 가리키는 방식을 달리하여 내적 분열을 강조하는 식으로 실현되었군.

⑤ ㉔는 [B]에서 대화를 최소화하여 사건의 긴장감을 고조하는 식으로 실현되었군.

내적분열, 긴장감.

모두 갈등이 있다는 말인데, 갈등은 안 보입니다.

25. [C]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의 고단한 생활을 간접적으로 보여 준다.
- ② '나'가 소설 쓰기를 배워 가는 과정을 보여 준다.
- ③ '나'가 창작의 어려움을 깨달아 가는 모습을 보여 준다.
- ④ '나'가 소설을 옮겨 적으며 스스로 위안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 ⑤ '나'가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에 대해 보이는 애착을 구체적인 장면으로 보여 준다.

역시 소설을 직접 보면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주산 시간에 국어 노트 뒷장을 펴고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옮겨 본다.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옮겨 보았다. 아버지는 난쟁이었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옮겼다.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옮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 영호, 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한 다섯 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옮지 않다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다.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는 '다섯 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다.

.....이제 열일곱의 나는 컨베이어 위에서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옮겨고 있다. 천국을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나 우리 다섯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고 단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이 없다,고.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고.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도 같았다,고.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고. 그런데도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잘 참았다,고.

하지만 출제의도를 파악하면 매우 쉽습니다.

결국 글의 주제는?

화자의 내면심리. 상황. 태도.

- ① '나'의 고단한 생활을 간접적으로 보여 준다.

화자의 상황

- ② '나'가 소설 쓰기를 배워 가는 과정을 보여 준다.

화자의 상황

- ④ '나'가 소설을 옮겨 적으며 스스로 위안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화자의 태도

- ⑤ '나'가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에 대해 보이는 애착을 구체적인 장면으로 보여 준다.

화자의 태도. 내면심리

- ③ '나'가 창작의 어려움을 깨달아 가는 모습을 보여 준다.

화자가 창작의 어려움?

소설이라는 꿈을 발견해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정답!

26. [D]는 작품 창작의 동기를 작품에 직접 드러내고 있다. <보기>에서 [D]와 성격이 유사한 것은?

— < 보기 > —

목중: 오랜만에 나왔으니 예전에 하던 소리나 한번 해 보자. 어어어 아.

음중: (뒤에서 달려 나와 탁 치며) 야, 이놈아!

목중: 이크, 이게 웬 일이다. 어느 광대 놈이 나오자마자 사람부터 쳐.①

음중: 송아지 풀 뜯어 먹고 울 듯이 '어어어 아' 하면서 나왔더니 거 무슨 말이야?②

목중: 내가 나오기는 부모 배 밖에 이제 나왔다고 한 것이 아니라 놀이판에 나오길 이제 나왔단 말이야.③

음중: 옳지. 그럼 우리 여기 모인 양반들에게 박수 한번 크게 받게 제대로 놀아 보자.④

목중: 너 그러나 저러나 그 쓴 게 뭐냐?

음중: 쓰긴 내가 뭘 써. 일수(日收)를 써 월수(月收)를 써?⑤

- 양주별산대놀이 개작 -

(지문 중략)

글을 쓰기로 마음을 먹었을 땐 나는 그 시절을 다 극복한 것도 같았다. 그래서 그 시절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한 자세히 써 보기로 했다. 그때의 기억을 복원시켜 내 말문을 띄워 보고 내 인생의 폐문 앞에서 끊겨 버린 내 발자국을 연결시켜 줘 보기도.

장면/서술 - 창작 동기

인생의 폐문. 끊겨버린 지금 내 인생과 그 시절 내 인생의 시작을 연결 지어보려 했다.

뜬금포 양주별산대놀이?

소설가는 소설을 쓰게 된 동기 = 어린 시절 경험
놀이꾼은 놀게 되는 동기 = 박수 한 번 크게 받
들을 연결 짓는 그것도 바로 평가원이 생각하는 문학 능력!

2006학년도 6월 모의고사 46~50번 풀이시간 :

풀이 전 이해도 : 수업 후 이해도 :

상처를 입은 노루는 설원에 피를 뿌리며 도망쳤다. 사냥꾼과 물이꾼은 눈 위에 방울방울 번진 핏자국을 따라 노루를 쫓았다. 핏자국을 따라가면 어디엔가 노루가 피를 쏟고 쓰러져 있으리라는 것이었다. <나>는 흰 눈을 선연하게 물들이고 있는 핏빛에 가슴을 섬뜩거리며 마지못해 일행을 쫓고 있었다. 총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와 같은 후회가 가슴에서 끝없이 피어올랐다. <나>는 차라리 노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기 전에 산을 내려가 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망설이기만 할 뿐 가슴을 두근거리며 해가 ㉠ 저물 때까지도 일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핏자국은 끝나지 않았고, <나>는 어스름이 내릴 때야 비로소 일행에서 떨어져 집으로 되돌아갔다. 그리고 <나>는 곧 열이 심하게 앓아 누웠기 때문에, 다음날 그들이 산을 세 개나 더 넘어가서 결국 그 노루를 찾아냈다는 이야기는 자리에서 소문으로 듣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그것만으로도 몇 번이고 끔찍스러운 몸서리를 ㉡ 치곤 했다.

서장(序章)은 대략 그런 이야기였다. 물론 내가 처음에 이 서장을 읽은 것은 아니었다. 어느 중간을 읽다가 문득 긴장하여 처음부터 이야기를 다시 읽게 된 것이었지만, 여기에서도 나는 그 총소리 하며 노루의 핏자국이나 눈빛 같은 것들이 묘한 조화 속에 긴장기 어린 분위기를 이루고 있음을 느꼈다. 사실 여기서도 암시하고 있듯이 형의 소설은 전반에 걸쳐서 무거운 긴장과 비정기가 흐르고 있었다.

형의 내력에 대한 관심도 문제였지만, 형의 소설이 나를 더욱 초조하게 하는 것은 그것이 이상하게 나의 그림과 관계가 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 때문이었다. 그것은 어쩌면 사실일 수도 있었다. 헤인과 헤어지고 나서 나는 갑자기 사람의 얼굴이 ㉢ 그리고 싶어졌다. 사실 내가 모든 사물에 앞서 사람의 얼굴을 한번 그리고 싶다는 생각은 막연하게나마 꽤 오래 지너온 갈망이었다. 그러니까 헤인과 헤어지게 된 것이 그 모든 동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무렵 그런 충동이 새로 워진 것은 사실이었다.

나의 그림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그것은 견딜 수 없이 피로운 일이다. 그리고 나는 내가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화필과 물감을 통해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의 10분의 1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나는 인간의 근원에 대해 생각을 좀 더 깊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느낌이 절실했던 점만은 지금도 고백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하여 에덴으로부터 그 이후로는 아벨이라든지 카인, 또 그 인간들이 지니고 의미하는 속성들을 즉흥적으로 생각해 보곤 하였다. 그러나 어느 것도 전부를 긍정할 수는 없었다. 단세포 동물처럼 아무 사고도 찾아볼 수 없는 에덴의 두 인간과 창세기적 아벨의 선 개념, 또 신으로부터 영원한 악으로 단죄받은 카인의 질투—그것은 참으로 인간의 항상 의지로서 신을 두렵게 했을지도 모른다—그 이후로 나타난 수많은 분화, 선과 악의 무한정한 배합 비율……. 그러나 감격으로 나의 화필이 ㉣ 떨리게

하는 얼굴은 없었다. 나는 실상 그 많은 얼굴들 사이를 방황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헤인 이후 나는 벌써 어떤 얼굴을 강하게 예감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아직은 내가 그것과 만날 수 없었을 뿐이었다. 동그스름한, 그러나 튀어 나갈 듯이 긴장한 선으로 얼굴의 외곽선을 떠 놓고 (그것은 나에게 있어 참 이상한 방법이였다) 나는 며칠 동안 고심만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소설이라는 것이 시작되기 바로 전날이었을 것이다. 형이 불쑥 나의 화실에 나타났다. 그는 낮부터 취해 있었다. 숙제 나의 일은 ㉤ 제쳐 놓고 학생들에게 매달려 있는 나에게 형이 시비조로 말했다.

“흠! 선생님이 그러는 사람은 외롭구나. 교합 작용이 이루어지는 기관은 하나도 용납하지 않았으니…….”

㉥ 얼굴의 윤곽만 떠 놓은 나의 화폭을 완성된 것에서처럼 형은 무엇을 찾아내려는 듯 요리조리 뜯어보고 있었다. 나는 물끄러미 그 형을 바라보았다.

“그건 아직 시작인걸요.”

“뭐, 보기에 따라서는 다 된 그림일 수도 있는걸……. 하나님의 가장 진실한 아들일지도 몰라.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만으로 살아가는. 하지만, 눈과 입과 코…… 귀를 주면…… 달라질 테지—한테, 선생님은 어느 편이지?”

형은 그림과 나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 눈이 무엇을 열심히 찾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밖에서 찾을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줄을 알고 있는 눈이었다. 나는 어리둥절해 있기만 했다.

“흠, 나를 무시하는군. 사람의 안팎은 합리적 논리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예술가도 이 의사에게 동 의해 줄 테지. 그렇다면 내 얘기도 조금은 맞는 데가 있을 지 몰라. 어때, 말해 볼까?”

형은 도시 중잡을 수 없는 말을 했다. 무엇인가 열심이라는, 열심히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다.

“그 새로 탄생할 인간의 눈은, 그리고 입은 좀더 독이 흐르는 쪽이어야 할 것 같은데……. 희망은—이건 순전히 나의 생각이지만, 선(線)이 긴장을 하고 있다는 것
[A] 이야.”

이상하게도 형은 나의 그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 이청준, 「병신과 머저리」 -

46. 위 글을 읽은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두 이야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 연관성을 세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군.
- ② 개인과 사회의 갈등보다는 개인의 내면적 갈등에 깊은 주의를 기울여 읽어야겠군.
- ③ 간결한 문체와 사실적인 묘사로 인물이 처한 긴박한 상황을 실감나게 보여 주고 있군.
- ④ 줄표(---)와 줄임표(……)의 활용을 통해 상황에 대한 서술이나 인물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군.
- ⑤ 추상적인 개념어를 사용한 요약적 서술과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한 장면 제시를 모두 활용하고 있군.

47. 위 글의 내용을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시간적인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1점]

—<보 기>—

ㄱ. 형이 소설을 쓴다.
 ㄴ. 동생이 헤인과 헤어진다.
 ㄷ. 동생이 사람의 얼굴을 그린다.
 ㄹ. 형이 동생의 화실을 방문한다.

- ① ㄱ-ㄴ-ㄷ-ㄹ ② ㄱ-ㄴ-ㄹ-ㄷ
- ③ ㄴ-ㄷ-ㄱ-ㄹ ④ ㄴ-ㄷ-ㄹ-ㄱ
- ⑤ ㄷ-ㄹ-ㄱ-ㄴ

48. ㉠을 통해서 동생의 상황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형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싶지만, 아직은 형과의 거리를 좁힐 수 없다.
- ② 종교적 깨달음의 감격을 누리고 싶지만, 아직은 인간적인 관계가 크다.
- ③ 순수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할 방법을 아직은 찾지 못하고 있다.
- ④ 그림에 근원적이고 절실한 의미를 담아내고 싶지만, 아직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
- ⑤ 그림에 몰두하여 헤인과 이별한 상처를 치유하고 싶지만, 아직은 그럴 수 없다.

49.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동생의 예술적 견해를 집약해서 보여 준다.
- ② 형이 동생의 심리 상태를 간파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③ 형이 동생의 그림에서 의미 있는 어떤 것을 찾았음을 시사한다.
- ④ 형이 동생의 그림에 채워지기를 원하는 얼굴 모습을 암시한다.
- ⑤ 동생의 삶의 태도가 변화하기를 바라는 형의 의식을 암시한다.

50. 위 글과 <보기>의 ㉠~㉣를 각각 대응시켰을 때, 그 의미가 서로 다른 것은? [1점]

—<보 기>—

산을 한 굽이 돌아서자 날이 벌써 ㉠ 저물어 가고 있었다. 아침 해가 앞산 위에 떴나 보다 하면 벌써 뒷산에서는 해가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산골은 날씨 변화가 심해서 땅거미와 더불어 순간적으로 비바람이 ㉡ 치기 시작했다. 친구가 ㉢ 그려 준 약도를 가지고 나는 산 너머에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친구의 집을 찾아 급히 발걸음을 옮겼다. 산 중턱을 지나면서 젖은 몸이 ㉣ 떨려 오기 시작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묘한 감정이 솟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만사를 ㉤ 제치고 친구를 찾아가는 마음은 산길을 타는 고통을 잊게 했고 한층 발걸음을 가볍게 해 주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T+I.A (Topic + Information Architecture)
<병신과 머저리> '이청준'

구조	표면적 정보⇒(문학적관습)⇒이면적 정보 인물(+내면심리), 사건/갈등/장면, 서사
#1 형의소설	노루 사냥꾼 물이꾼 나 : 우유부단, 유약함 ⇒ 형의 소설, 나의 태도 = 긴장, 비정기
#2 형의소설 나의그림	형의 소설 = 나의 그림 C 헤인과 이별 + 오랜 갈망 E 인간 근원 탐색, 답 못찾음 평가원 머릿속 신학⇒철학⇒자연과학 (창세기, 단세포)
#3(역행) 시작한 나의그림 vs 답을 본 형	내 그림 시작 형이 술 취해 방문 나는 시작한 그림 형은 다 된 그림. 형의 생각 표출
주제 = 정보가치 높은 내용 + 구조 feat. 평가원 출제자	

상처를 입은 노루는 설원에 피를 뿌리며 도망쳤다. 사냥꾼과 물이꾼은 눈 위에 방울방울 번진 핏자국을 따라 노루를 쫓았다. 핏자국을 따라가면 어디엔가 노루가 피를 쏟고 쓰러져 있으리라는 것이었다. <나>는 흰 눈을 선연하게 물들이고 있는 핏빛에 가슴을 점뚝거리며 마지막에 일행을 쫓고 있었다. 총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와 같은 후회가 가슴에서 끝없이 피어올랐다. <나>는 차라리 노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기 전에 산을 내려가 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망설이기만 할 뿐 가슴을 두근거리며 해가 저물 때까지도 일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핏자국은 끝나지 않았고, <나>는 어스름이 내릴 때에야 비로소 일행에서 떨어져 집으로 되돌아갔다. 그리고 <나>는 곧 열이 심하게 앓아 누웠기 때문에, 다음날 그들이 산을 세 개나 더 넘어가서 결국 그 노루를 찾아냈다는 이야기는 자리에서 소문으로 듣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그것만으로도 몇 번이고 끔찍스러운 몸서리를 치곤 했다.

서장(序章)은 대략 그런 이야기였다. 물론 내가 처음에 이 서장을 읽은 것은 아니었다. 어느 중단을 읽다가 문득 긴장하여 처음부터 이야기를 다시 읽게 된 것이었지만, 여기에서도 나는 그 총소리 하며 노루의 핏자국이나 눈빛 같은 것들이 묘한 조화 속에 긴장기 어린 분위기를 이루고 있음을 느꼈다. 사실 여기서도 암시하고 있듯이 형의 소설은 전반에 걸쳐서

무거운 긴장과 비정기가 흐르고 있었다.

초반부 인사배 세팅, 액자식 구성, 의도는?

액자식 구성으로 들어 온 서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는 사실, 전체를 관통하는

형의 소설

나의 그림

에 초점을 두고 연결하기 위한 도입부 역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문학 지식-개념 학습이 아주 치명적이지는 않다는 말씀을 항상 드리는 것이고, 특히 이 소설은, 답을 찾은 형의 소설을 보게 된 나와 형의 다름이 크게 있습니다.

48. ㉠을 통해서 동생의 상황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형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싶지만, 아직은 형과의 거리를 좁힐 수 없다.

그렇다면 48번 정답은 1번 선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작품 지식은, 정확히 평가원 문학 작품 접근법이 토대로 된 뒤에야 의미가 있고, 실제로는 문학 지식을 쌓는 과정, 문학적 관습을 쌓는 과정, 평가원의 의도를 이해하는 과정의 수단일 뿐, 절대로 작품 전체 정보 기억으로 백분위 100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일부 예외적 사례에 제발 좀 어그로 끌리지 마세요.

형의 내력에 대한 관심도 문제였지만, 형의 소설이 나를 더욱 초조하게 하는 것은 그것이 이상하게 나의 그림과 관계가 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 때문이었다. 그것은 어찌된 사실일 수도 있었다. 헤인과 헤어지고 나서 나는 갑자기 사람의 얼굴이 그리고 싶어졌다. 사실 내가 모든 사물에 앞서 사람의 얼굴을 한번 그리고 싶다는 생각은 막연하게나마 꽤 오래 지녀온 갈망이었다. 그러니까 헤인과 헤어지게 된 것이 그 모든 동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무렵 그런 충동이 새로 워진 것은 사실이었다.

장면 : 형의 소설 ⇨ 나의 그림 E

⇨ C 헤인과 이별 + 오랜 갈망

나의 그림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작가의 의도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 그림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이야기 하고 싶지
않다고? 뭐 유체 이탈 화법이야? 가 아니라요!



아시겠음? 자. 2번을 옮겨 고쳐 보자

감정. 즉, 자기의 내면 심리 서술, 의식의 흐름.
내뱉는거예요. 들어줘보자구요. 공감해줘봅시다.
왜 저런 말을 할까?
그만큼 나의 이야기, 나의 소설이 내게는 힘든
이야기를 하게 한다는 의미겠죠.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전할 수 없이 괴로운 일이다. 그리고 나는 내가 그
것에 대해 생각하고 화필과 물감을 통해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의 10분의 1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나는 인
간의 근원에 대해 생각을 좀 더 깊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느낌이 적실했던 점만은 지금도 고백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하
여 에덴으로부터 그 이후로는 아벨이라든지 카인, 또 그 인간
들이 지니고 의미하는 속성들을 즉흥적으로 생각해 보곤 하
였다. 그러나 어느 것도 전부를 긍정할 수는 없었다. 단세포
동물처럼 아무 사고도 찾아볼 수 없는 에덴의 두 인간과 창
세기적 아벨의 선 개념, 또 신으로부터 영원한 악으로 단죄받
은 카인의 질투—그것은 참으로 인간의 향상 의지로서 신을
두렵게 했을지도 모른다—그 이후로 나타난 수많은 분화,
선과 악의 무한정한 비합 비율…… 그러나 감격으로 나의 화
필이 ④ 떨리게 하는 얼굴은 없었다. 나는 실상 그 많은 얼굴
들 사이를 방황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헤인 이후 나는 벌써 어떤 얼굴을 강하게 예감하고 있다는
사실이였다. 아직은 내가 그것과 만날 수 없었을 뿐이었다.
둥그스름한, 그러나 튀어 나갈 듯이 긴장한 선으로 얼굴의 외
곽선을 떠 놓고(그것은 나에게 있어 참 이상한 방법이었다)
나는 며칠 동안 고심만 하고 있었다.

결국 내가 그림을 그리면서, 인간의 근원에 대해 답을
찾고 싶었으나, 지금은 답이 안 나오고, 하지만 예감은
되고...

그 근원을 찾는데, 에덴? 신? 인간? 단세포?
아...

신⇒인간⇒자연과학
이 이어지는 인류 사상사 흐름 전체를 관통하며
인간의 본질, 인간의 근원에 대해 고민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 화가의 내면심리. 주제.

그러던 어느 날, 그 소설이라는 것이 시작되기 바로 전날이
었을 것이다. 형이 불쑥 나의 화실에 나타났다. 그는 낮부터
취해 있었다. 숙제 나의 일은 ㉞ 제쳐 놓고 학생들에게 매달
려 있는 나에게 형이 시비조로 말했다.
“흠! 선생님이 그리는 사람은 외롭구나. 교합 작용이 이루
어지는 기관을 하나도 용납하지 않았으니…….”
① 얼굴의 윤곽만 떠 놓은 나의 화폭을 완성된 것에서처럼
형은 무엇을 찾아내려는 듯 요리조리 뜯어보고 있었다. 나는
물끄러미 그 형을 바라보았다.
“그건 아직 시작이냐?”
“뭐, 보기에 따라서는 다 된 그림일 수도 있는걸…… 하나
님의 가장 진실한 아들일지도 몰라.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의 마음만으로 살아가는. 하지만, 눈과 입과
코…… 귀를 주면…… 달라질 테지—한테, 선생님은 어느
편이지?”
형은 그림과 나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 눈이 무엇을 열심
히 찾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밖에서 찾을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줄을 알고 있는 눈이었다. 나는 어리둥절해 있기만
했다.
“흥, 나를 무시하는군. 사람의 안팎은 합리적 논리로만 설
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예술가도 이 의사에게 동
의해 줄 테지. 그렇다면 내 얘기도 조금은 맞는 데가 있을
지 몰라. 어때, 말해 볼까?”
형은 도시 중잡을 수 없는 말을 했다. 무엇인가 열심이라
는, 열심히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다.
“그 새로 탄생할 인간의 눈은, 그리고 입은 좀더 독이
흐르는 쪽이어야 할 것 같은데…… 희망은—이건 순전
히 나의 생각이지만, 선(線)이 긴장을 하고 있다는 것
이야.”
이상하게도 형은 나의 그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3) <https://extmovie.com/freeboard/10764250>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압도적 수능 국어 전문가.

백인호 초격차 국어 파일 1 3-4주차 문학 원론

이어지는 흐름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서사 요소

형의 소설

나의 그림

나의 그림에 대한 인물 - 태도

나 : 시작 = 아직 답을 못 찾음 = 내적 갈등

형 : 완성 = 답을 찾음 = 내적 갈등 결과 답 찾음

46. 위 글을 읽은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두 이야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 연관성을 세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군.

이것을 주제도 못 잡고 감상하면 두 이야기? 처음에 나온 노루이야기? 이렇게 됩니다.

② 개인과 사회의 갈등보다는 개인의 내면적 갈등에 깊은 주의를 기울여 읽어야겠군.

역시 마찬가지로.

형과 동생의 갈등이 작품 전반에 나타나지만, 작품에 대한 쓸데 없는 전체 줄거리, 지식은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③ 간결한 문체와 사실적인 묘사로 인물이 처한 긴박한 상황을 실감나게 보여 주고 있군.

내적갈등이 주제인데

긴박. 외적 갈등. 상황 없습니다. 정답!

④ 줄표(---)와 줄입표(.....)의 활용을 통해 상황에 대한 서술자나 인물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군.

⑤ 추상적인 개념어를 사용한 요약적 서술과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한 장면 제시를 모두 활용하고 있군.

태도. 장면제시.

주제 밀접. 정보가치 높은 내용. 역시 정답.

47. 위 글의 내용을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시간적인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1점]

<보 기>

ㄱ. 형이 소설을 쓴다.
 ㄴ. 동생이 헤인과 헤어진다.
 ㄷ. 동생이 사람의 얼굴을 그린다.
 ㄹ. 형이 동생의 화실을 방문한다.

- ① ㄱ-ㄴ-ㄷ-ㄹ
- ② ㄱ-ㄴ-ㄹ-ㄷ
- ③ ㄴ-ㄷ-ㄱ-ㄹ
- ④ ㄴ-ㄷ-ㄹ-ㄱ
- ⑤ ㄷ-ㄹ-ㄱ-ㄴ

특이한 전개 방식

역행이라는 특이한 전개방식. 정답 4번.

C 헤인과 이별 ⇨ E 예전부터 생각한 그림 그려야지 ⇨ 나는 답 못 찾음. 형이 나를 찾아와 그림을 봄 ⇨ 답을 찾은 형은 소설을 씀

48. ㉠을 통해서 동생의 상황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형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싶지만, 아직은 형과의 거리를 좁힐 수 없다.
- ② 종교적 깨달음의 감격을 누리고 싶지만, 아직은 인간적인 한계가 크다.
- ③ 순수하게 사랑을 원하지만, 그렇게 할 방법을 아직은 찾지 못하고 있다.
- ④ 그림에 근원적이고 절실한 의미를 담아내고 싶지만, 아직은 그려지 못하고 있다.
- ⑤ 그림에 몰두하여 헤인과 이별한 상처를 치유하고 싶지만, 아직은 그럴 수 없다.

49.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동생의 예술적 견해를 집약해서 보여 준다.
- ② 형이 동생의 심리 상태를 간파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③ 형이 동생의 그림에서 의미 있는 어떤 것을 찾았음을 시사한다.
- ④ 형이 동생의 그림에 채워지기를 원하는 얼굴 모습을 암시한다.
- ⑤ 동생의 삶의 태도가 변화하기를 바라는 형의 의식을 암시한다.

형과 동생의 상황

형은 답을 찾았고 vs 나는 못 찾았고. 역시 주제

48. ㉠을 통해서 동생의 상황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형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싶지만, 아직은 형과의 거리를 좁힐 수 없다.

평가원의 소설 출제 의도

작품 전체 지식 근거 맞지만,
또한, 밑줄 근거 충분히 가능하지만

출제의도는 주제.

형과의 갈등 보다는

형제 각각 내적 갈등이 주제입니다.

- ② 종교적 깨달음의 감격을 누리고 싶지만, 아직은 인간적인 한계가 크다.

가능하지 않나요? 한계도?

- ③ 순수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할 방법을 아직은 찾지 못하고 있다.

가능하지 않나요? 아직 찾지 못했음?

- ⑤ 그림에 몰두하여 헤인과 이별한 상처를 치유하고 싶지만, 아직은 그럴 수 없다.

가능하지 않나요? 아직 아픔?

- ④ 그림에 근원적이고 절실한 의미를 담아내고 싶지만, 아직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

평가원의 소설 출제 의도

= 결국 주제 찾아라 + 문학적 관습

신 ⇨ 인간 ⇨ 자연 과학으로 이어지듯

인간의 본질, 근원에 대해 찾는 '나'의 내면 심리

결국, 종교도, 순수함도, 사랑도, 주제를 포괄하지 못하는 일부에 불과하고,

그 일부로는 답을 찾을 수 없음도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

49.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동생의 예술적 견해를 집약해서 보여 준다.

정답. 끝

동생의 내면 심리가 아니라 형의 내면 심리.

- ② 형이 동생의 심리 상태를 간파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③ 형이 동생의 그림에서 의미 있는 어떤 것을 찾았음을 시사한다.
- ④ 형이 동생의 그림에 채워지기를 원하는 얼굴 모습을 암시한다.
- ⑤ 동생의 삶의 태도가 변화하기를 바라는 형의 의식을 암시한다.

문항 설계 주목

48번에서 동생의 내면 심리를 물었으니

49번에서는 당연히 형의 내면 심리를 물을 것이고

그 출제 설계에 주목하면

쓸데 없이 선지 단어 하나 하나 확인할 필요 없이

의도가 보이며 바로 정답이 보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1. 시간
2. 피로도
3. 정확도

모든 부분에서 이득을 쌓아갈 수 있고

이 힘이, 시간 단축, 정답률 상승, 확신, 멘탈 안정으로 이어지는 실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됩니다.

2008학년도 6월 모의고사 23~26번 풀이시간 :
 풀이 전 이해도 : 수업 후 이해도 :

다방을 찾는 사람들은, 어인 까닭인지 모두들 구석진 좌석을 좋아하였다. 구보는 하나 남아 있는 가운데 탁자에 앉는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그는 그곳에서 엘만의 「발스 센터멘털」을 가장 마음 고요히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선율이 채 끝나기 전에, 방약무인(傍若無人)한 소리가, 구포 씨 아나오—— 구보는 다방 안의 모든 사람들의 ㉠ 시선을 온몸에 느끼며, 소리 나는 쪽을 돌아보았다. 중학을 이삼 년 일찍 마친 사내, 어느 생명 보험 회사의 외교원이라는 말을 들었다. 평소에 결코 왕래가 없으면서도 이제 이렇게 알은체를 하려는 것은 오직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먹은 술 탓인지도 몰랐다. 구보는 무표정한 얼굴로 약간 끄떡하여 보이고 ㉡ 즉시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그 사내가 또 한 번, 역시 큰 소리로, 이리 좀 안 오시료, 하고 말하였을 때 구보는 ㉢ 게으르게나마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탁자로 가는 수밖에 없었다. 이리 좀 앉으시오, 참, 최 군, 인사하지. 소설가, 구포 씨.

이 사내는, 어인 까닭인지 구보를 반드시 '구포'라고 발음하였다. 그는 맥주병을 들어 보고, 아이 쪽을 향하여 더 가져오라고 소리치고, 다시 구보를 보고, 그래 요새두 많이 쓰시우, 무어 별로 쓰는 것 '없습니다.' 구보는 자기가 이러한 사내와 접촉을 가지게 된 것에 지극한 불쾌를 느끼며, 경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그와 사이에 간격을 두기로 하였다. 그러나 ㉣ 이 딱한 사내는 도리어 그것에서 일종 득의감을 맛볼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뿐 아니라, 그는 한 잔 십 전짜리 차들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 틈에서 그렇게 몇 병씩 맥주를 먹을 수 있는 것에 우월감을 갖고, 그리고 지금 행복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구보에게 술을 따라 권하고, 내 참 구포 씨 작품을 애독하지. 그리고 그러한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보가 아무런 감동도 갖지 않는 듯싶은 것을 눈치 채자, 사실, 내 또 만나는 사람마다 보고,

“구포 씨를 선전하지요.”

그러한 말을 하고는 혼자 허허 웃었다. 구보는 의미뚱뚱한 웃음을 웃으며, 문득, 이 용감하고 또 무지한 사내를 고급(高給)으로 채용하여 구보 독자 권유원을 시키면, 자기도 응당 몇 십 명의, 또는 몇 백 명의 독자를 획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그런 난데없는 생각을 하여 보고, 그리고 ㉤ 혼자 속으로 웃었다. 참 구보 선생, 하고 최 군이라 불린 사내도 말참견을 하여, 자기가 독견(獨鵞)의 「승방비곡(僧房悲曲)」*과 윤백남(尹白南)의 「대도전(大盜傳)」*을 걸작이라 여기고 있는 것에 구보의 동의를 구하였다. 그리고, 이 어느 화재 보험 회사의 권유원인지도 알 수 없는 사내는, 가장 영리하게,

“구보 선생님의 작품은 따루 치고…….”

그러한 말을 덧붙였다. 구보가 ㉥ 간신히 그것들이 좋은 작품이라 말하였을 때, 최 군은 또 용기를 얻어, 참 조선서 원고료(原稿料)는 얼마나 됩니까. 구보는 이 사내가 원료라 발음하지 않는 것에 경의를 표하였으나 물론 그는 이러한 종류의 사내에게 조선 작가의 생활 정도를 알려 주어야 할 아무런 의무도 갖지 않는다.

그래, 구보는 혹은 상대자가 모멸을 느낄지도 모를 것을 알면서도, 불쑥, 자기는 이제까지 고료라는 것을 받아 본 일이 없어, 그러한 것은 조금도 모른다 말하고, 마침 문을 들어서려는 벗을 보자 그만 실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어라 말할 수 있기 전에 제자리로 돌아와 노트와 단장을 집어 들고, 마약 자리에 앉으려는 벗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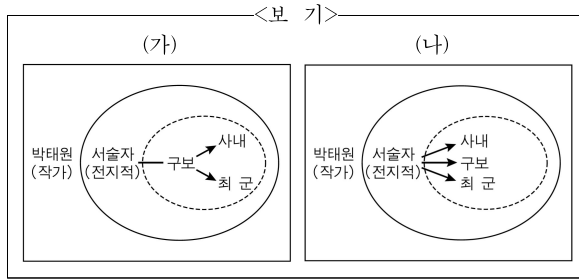
“나갑시다. 다른 테로 갑시다.”

밖에, 여름 밤, 가벼운 바람이 상쾌하다.

-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
 * 「승방비곡」, 「대도전」 : 1930년대에 큰 인기를 얻었던 장편 소설.

23.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한된 공간에서의 만남을 통하여 세태를 암시하고 있다.
 - ② 현재형 어미를 사용해 인물의 내면을 생동감 있게 제시하고 있다.
 - ③ 시간적 순서에 따라 사건을 배열하여 사건의 인과성을 밝히고 있다.
 - ④ 직접 화법과 간접 화법을 활용하여 등장인물 간의 심리적 거리를 조절하고 있다.
 - ⑤ 심표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읽기 속도에 변화를 줌으로써 그 부분에 주목하게 하고 있다.
24. ㉠~㉥에 나타난 '구보'의 심리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창피스러움과 당혹스러움을 느끼고 있다.
 - ② ㉡ : 상대방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 내키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행동하고 있다.
 - ④ ㉣ : 상대방처럼 되지 못하는 자신을 비웃고 있다.
 - ⑤ ㉤ :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의 말을 마지못해 인정하고 있다.

25. 위 글은 <보기> (가)의 시점으로 서술되어 있다. ㉠를 (나)의 시점으로 바꾸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이 사내는 내가 공손한 척 말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 ② 이 사내는 내가 공손하게 말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득의감을 맛보고 있는지도 몰랐다.
- ③ 그 사내는 구보가 공손하게 말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득의에 찬 듯한 표정을 지었다.
- ④ 그 사내는 딱하게도 구보가 공손한 척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득의감을 맛보고 있었다.
- ⑤ 그 사내는 딱하게도 구보가 공손한 척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득의감을 맛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26. 위 글에 등장하는 세 사람이 미술관에서 우연히 만나 대화를 나누는다고 가정할 때, 대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내 : 이 작품을 그린 사람이 내 후배라오. 대단하지요?
 자, 대충 보았으니 이제 점심이나 먹으러 갑시다. 내가 한턱내지요. ①

최 군 : 요즘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저 작품이 화제랍니다. 저 작품 좀 보고 갑시다. 그래야 교양 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②

구보 : 글쎄요.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린다고 훌륭한 작품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을까요? ③

최 군 : 그래도 이런 작품 하나쯤 거실에 걸어 두면 품이 날 텐데, 얼마면 살 수 있을까요? ④

구보 : 아무튼 요즘은 모든 것을 돈으로만 따지려 해서 문제예요. 내가 소설을 쓰는 것은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한 것이지요. ⑤

T+I.A (Topic + Information Architecture)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박태원'

구조	표면적 정보→(문학적관습)⇒이면적 정보 인물(+내면심리), 사건/갈등/장면, 서사
#1 인사배 set (도입)	구보 : 다방 찾음. 원치 않는 자리. 그래도 음악은 좋았는데... 중학 선배. 생명보험회사 외교원(영업직) 갑자기 아는체. 아...짜친다...
#2 전개	구보 : 나 싫어하는 짓만 골라 하네? 중학선배 = 최군 천박, 허세, 과시, 인싸인 척, 유명세 중요..
#3 전환 (결말)	친구 방문 나가자. 가벼운 바람. 상쾌
주제 = 정보까지 높은 내용 + 구조 feat. 평가원 출제자	

현대 소설이 어려운 지점이라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실 그냥 읽어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라면, 왜, 이렇게 표현 했을까?
를 생각해 보면 어느정도 답이 나오고
특히, 평가원 출제자들의 마인드 set을 생각하면 더 와 닿습니다.

다방을 찾은 사람들은, 어인 까닭인지 모두들 구석진 좌석을 좋아하였다. **구보는** 하나 남아 있는 가운데 탁자에 앉는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그는 그곳에서 엘반의 「발스 센터멘털」을 가장 마음 고요히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선율이 체 끝나기 전에, **방약무인(傍若無人)**한 소리가, 구포 씨 아 니오— 구보는 다방 안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온몸에 느끼며** 소리 나는 쪽을 돌아보았다. 중학을 이삼 년 일찍 마친 **사내** 어느 생명 보험 회사의 외교원이라는 말을 들었다. 평소에 결코 왕래가 없으면서도 이제 이렇게 알은체를 하러는 것은 오직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먹은 술 탓인지도 몰랐다. 구보는 무표정한 얼굴로 약간 **뜨겁게** 보이고 **즉시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그 사내가 또 한 번, 역시 큰 소리로, 이 리 좀 안 오시료, 하고 말하였을 때 구보는 **계으르게나마**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탁자로 가는 수밖에 없었다. 이리 좀 앉으시오. 참, 최 군, 인사하지, 소설가, 구포 씨.

배경

다방

상황/장면

원하는 자리는 없음
그래도 음악은 괜찮은데...

인물-태도

아...짜친다.
그나마 음악 잘 듣고 있는 내게

㉠ 겁나 크게 불러서 사람들이 다 나 쳐다보게 하네...
구보 내면 심리 : 아마도 쪽팔림.

㉡ 귀찮으니 그냥 일단 대꾸 하고, 모르는 척...

㉢ 하려했는데 부르네...하 가기 싫다.

와 같은 구보의 속마음 들리시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문학을 틀릴 일이 없습니다.

안 들리셨다면, 좀만 더 제 잔소리를 들으시죠.

이 사내는, 어인 까닭인지 구보를 반드시 '구포'라고 발음하였다. 그는 맥주병을 들어 보고, 아이 쪽을 향하여 더 가져오라고 소리치고, 다시 구보를 보고, 그래 요새두 많이 쓰시우. 무어 별로 쓰는 것 '없습니다.' 구보는 자기가 이러한 사내와 접촉을 가지게 된 것에 **지극한 불쾌**를 느끼며, 경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그와 사이에 **간격**을 두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 딱한 사내**는 도리어 그것에서 일종 **특의감**을 맛볼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뿐 아니라, 그는 한 잔 십 전짜리 차들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 틈에서 그렇게 몇 병씩 맥주를 먹을 수 있는 것에 **우월감**을 갖고, 그리고 지금 **행복**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구보에게 술을 따라 권하고, 내 참 구포 씨 작품을 애독하지. 그리고 그러한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보가 아무런 감동도 갖지 않는 듯싶은 것을 눈치 채자, 사실, 내 또 만나는 사람마다 보고,
"구포 씨를 선전하지요."

인물-태도

구보가 그 사내를 바라보는 면면... 불쾌, 간격...
존대 해주니 특의감, 비싼 술 우월감. 그걸 행복...

그러한 말을 하고는 혼자 히히 웃었다. 구보도 의미불명한 웃음을 웃으며, 문득, 이 용감하고 또 무지한 사내를 고급(高給)으로 채용하여 구보 독자 권유원을 시키면, 자기도 응당 몇 십 명의, 또는 몇 백 명의 독자를 획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그런 난데없는 생각을 하여 보고, 그리고 ㉠ 혼자 속으로 웃었다. 참 구보 선생, 하고 최 군이라 불린 사내도 말 참견을 하여, 자기가 독견(獨鵝)의 「승방비곡(僧房悲曲)」*과 윤백남(尹白南)의 「대도전(大盜傳)」*을 걸작이라 여기고 있는 것에 구보의 동의를 구하였다. 그리고, 이 어느 화제 보험 회사의 권유원인지도 알 수 없는 사내는, 가장 영리하게, “구보 선생님의 작품은 따루 치고…….”

그러한 말을 덧붙였다. 구보가 ㉡ 간신히 그것들이 좋은 작품이라 말하였을 때, 최 군은 또 용기를 얻어, 참 조선서 원고료(原稿料)는 얼마나 됩니까. 구보는 이 사내가 원료(原稿料)를 발음하지 않는 것에 경의를 표하였으나 물론 그는 이러한 종류의 사내에게 조선 작가의 생활 정도를 알려 주어야 할 아무런 의무도 갖지 않는다.

인물-태도

구보가 그 사내를 바라보는 면면

계속해 이어지지만

㉠ 냉소궂죠.

최군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종류의 사내’

즉, 구보가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는 부류들.

그래, 구보는 혹은 상대자가 모멸을 느낄지도 모를 것을 알면서도, 불쑥, 자기는 이제까지 고료라는 것을 받아 본 일이 없어, 그러한 것은 조금도 모른다 말하고, 마침 문을 들어서 는 벗을 보자 그만 실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어라 말할 수 있기 전에 제자리로 돌아와 노트와 단장을 집어 들고, 마약 자리에 앉으려는 벗에게,

“나갑시다. 다른 데로 갑시다.”

밖에, 여름 밤, 가벼운 바람이 상쾌하다.

인물-태도

드디어 친구가 왔고,

이제 도망가야지.

나오니 가벼운 바람이 상쾌하네.

주제는 간단합니다.

구보가 친구 만나러 다방에 갔다가

자기가 딱 질색인 부류들을 만나 불쾌함을 느끼는 짧은 시간의 장면을 이렇게나 펼쳐낸 것 뿐이에요.

요즘은 잘 안 나오는 유형이지만,

26. 위 글에 등장하는 세 사람이 미술관에서 우연히 만나 대화를 나누는다고 가정할 때, 대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내 : 이 작품을 그린 사람이 내 후배라오. 대단하지요? 자, 대충 보았으니 이제 점심이나 먹으러 갑시다. 내가 한턱내지요. ①

최 군 : 요즘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저 작품이 화제랍니다. 저 작품 좀 보고 갑시다. 그래야 교양 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②

구보 : 글썄요.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린다고 훌륭한 작품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을까요? ③

최 군 : 그래도 이런 작품 하나쯤 거실에 걸어 두면 폼이 날 텐데, 얼마면 살 수 있을까요? ④

구보 : 아무튼 요즘은 모든 것을 돈으로만 따지려 해서 문제예요. 내가 소설을 쓰는 것은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한 것이지요. ⑤

이런 문제가 평가원 의도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물	성격	구보의 태도
사내	허세, 유명세 중시 예술은 모름 돈 중시	거리감 소극적 대응 ↓ 계몽 의지? or 체념 무시?
최군		

보이지요?

인물 성격 세팅 후

구보의 태도에서

거리감을 두는 것 자체가

계몽을 하겠다는 것 보다는

체념하거나 무시하는 것이니

정답은 5번 끝.

24. ㉠~㉣에 나타난 '구보'의 심리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창피스러움과 당혹스러움을 느끼고 있다.
- ② ㉡ : 상대방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 내키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행동하고 있다.
- ④ ㉣ : 상대방처럼 되지 못하는 자신을 비웃고 있다.
- ⑤ ㉤ :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의 말을 마지못해 인정하고 있다.

주제가 구보의 심리이니 역시 바로 문제!

④ ㉣ : 상대방처럼 되지 못하는 자신을 비웃고 있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 내면심리는 없고
짜치게 자꾸 이상한 소리하는 사내와 최군이 싫습니다.
정답은 역시 4번!

23.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한된 공간에서의 만남을 통하여 세태를 암시하고 있다.

주제

다방 / 사내와 최군 만남 / 돈, 유명세 중시하는 세태...

- ② 현재형 어미를 사용해 인물의 내면을 생동감 있게 제시하고 있다.

개념 보다는 주제

현재형 어미 확인도 가능하지만...
인물의 내면. 심리. 역시 주제였으니. 일단 좁히고
나중에 판단 안 되면 발췌독 갑니다.

- ③ 시간적 순서에 따라 사건을 배열하여 사건의 인과성을 밝히고 있다.

개념 보다는 주제

역시, 개념 적용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시간 순 맞고, 사건/장면 배열도 맞고, 구보가 짜증나서
나가는 사건으로의 인과도 됩니다.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

논리가 아니라
개념이 아니라
공감
의도 파악이라고.

잠시 개념어 정리

독서에서의 인과 vs 문학에서의 인과

독서에서의 인과 : 논리
즉, 원인과 결과의 관계. 줄여서 인과.

문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인과 = 논리
단, 이는 고전 소설과 현대 소설의 가장 큰 차이.

고전 소설	현대 소설
우연적 ⇨ 비논리적	필연적 ⇨ 논리적

따라서,
사사 장르에서의 개념어 '인과'는
사건 전개에 필연성, 사실성을 부여하는 장치
로 보면 됩니다.

예를들면
iron man이 뜬금포 슈퍼파워를 갖는다.
또는 뜬금포 악당이 나타난다 = 우연적 전개

iron man의 인물 성격, 배경, 사건들로,
슈퍼파워를 갖게 되는데 있어서의 설득적 장면을 보여준다
= 필연적 전개

그러면, 지문 내용이
사건 전개에 있어서의 논리부여가 중요해 보이나요?
구보의 내면심리 정서, 감정 표출이 중요해 보이나요?
글쓴, 출제 의도 당연히 정답 3번으로 보일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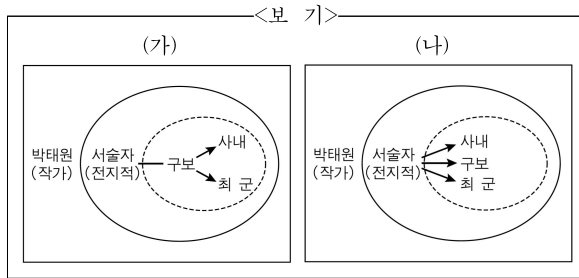
- ④ 직접 화법과 간접 화법을 활용하여 등장인물 간의 심리적 거리를 조절하고 있다.
- ⑤ 심표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읽기 속도에 변화를 줌으로써 그 부분에 주목하게 하고 있다.

나머지 선지도 역시. 주제, 정보가치 높은 내용

기준하면 쉽게 판단 됩니다!

이 문항의 유일한 개념 문항인데,
중등개념 수준입니다.

25. 위 글은 <보기> (가)의 시점으로 서술되어 있다. ㉠를 (나)의 시점으로 바꾸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이 사내는 내가 공손한 척 말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 ② 이 사내는 내가 공손하게 말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특의감을 맛보고 있는지도 몰랐다.
- ③ 그 사내는 구보가 공손하게 말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특의에 찬 듯한 표정을 지었다.
- ④ 그 사내는 딱하게도 구보가 공손한 척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특의감을 맛보고 있었다.
- ⑤ 그 사내는 딱하게도 구보가 공손한 척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특의감을 맛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출제 의도 파악이 핵심인데,
(가)→(나) 핵심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구보 입장이었다면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객관적 입장

- ①② 선지 '내가' 1인칭. out
- ③⑤ 선지. 듯한, 모른다. 추측이므로 전지적 작가 시점X
정답은 바로 4번.

2008학년도 9월 모의고사 40~43번 풀이시간 :
풀이 전 이해도 : 수업 후 이해도 :

아내는 너 밤새워 가면서 도적질하러 다니느냐, 계집질하러 다니느냐고 발악이다. 이것은 참 너무 억울하다. 나는 어안이 병병하여 도무지 입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는 그야말로 나를 살해하려던 것이 아니냐고 소리를 한 번 썩 질러 보고도 싶었으나 그런 긴가민가한 소리를 신불리 입 밖에 내었다가는 무슨 화를 볼는지 알 수 있다. 차라리 억울하지만 잠자코 있는 것이 우선 상책인 듯싶이 생각이 들길래 나는 이것은 또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툭툭 털고 일어나서 내 바지 포켓 속에 남은 돈 몇 원 몇 십 전을 가만히 꺼내서는 몰래 미닫이를 열고 살며시 문지방 밑에다 놓고 나서는 그냥 출달음박질을 쳐서 나와 버렸다.

여러 번 자동차에 치일 뻔하면서 나는 그래도 경성역을 찾아갔다. 빈자리와 마주 앉아서 이 쓰디쓴 입맛을 거두기 위하여 무엇으로나 입가심을 하고 싶었다.

커피. 좋다. 그러나 경성역 홀에 한 걸음을 들여놓았을 때 나는 내 주머니에는 돈이 한 푼도 없는 것을, 그것을 깜빡 잊었던 것을 깨달았다. 또 아득하였다. 나는 어디선가 그저 맥없이 머뭇머뭇하면서 어쩔 줄을 모를 뿐이었다. 얼빠진 사람처럼 그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나는 어디로 어디로 들입다 쓰다녔는지 하나도 모른다. 다만 몇 시간 후에 내가 **미쓰꼬시** **옥장**에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거의 대낮이었다.

나는 거기 아무 데나 주저앉아서 내 자라 온 스물여섯 해를 회고하여 보았다. 몽롱한 기억 속에서는 이렇다는 아무 제목도 불그러져 나오지 않았다.

나는 또 나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너는 인생에 무슨 욕심이 있느냐고. 그러나 있다고도 없다고도, 그런 대답은 하기가 싫었다. 나는 거의 나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기조차도 어려웠다.

허리를 굽혀서 나는 그저 금붕어나 들여다보고 있었다. **[A]** 금붕어는 참 잘들도 생겼다. 작은 놈은 작은 놈대로 큰 놈은 큰 놈대로 다 싱싱하니 보기 좋았다. 내리비치는 오일 햇살에 금붕어들은 그릇 바탕에 그림자를 내려뜨렸다. 지느러미는 하늘하늘 손수건을 흔드는 흉내를 낸다. 나는 이 지느러미 수효를 헤어 보기도 하면서 굽힌 허리를 좀처럼 펴지 않았다. 등허리가 따뜻하다.

나는 또 회탁의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거기서는 피곤한 생활이 딱 금붕어 지느러미처럼 흐느흐느 허비적거렸다. 눈에 보이지 않는 끈적끈적한 줄에 엉켜서 헤어나지들을 못한다. 나는 피로와 공복 때문에 무너져 들어가는 몸뚱이를 끌고 그 회탁의 거리 속으로 섞여 들어가지 않는 수도 없다 생각하였다.

나서서 나는 또 문득 생각하여 보았다. 이 발길이 지금 어디로 향하여 가는 것인가를…….

그때 내 눈앞에는 아내의 모가지가 벼락처럼 내려 떨어졌

다. 아스피린과 아달린*.

우리는 서로 오해하고 있느니라. 설마 아내가 아스피린 대신에 아달린의 정량을 나에게 먹여 왔을까? 나는 그것을 믿을 수는 없다. 아내가 대체 그럴 까닭이 없을 것이니.

그러면 나는 날밤을 새면서 도적질을, 계집질을 하였나? 정말이지 아니다.

우리 부부는 숙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는 절름발이인 것이다. 나나 아내나 제 거동에 로직을 붙일 필요는 없다. 변해할 필요도 없다. 사실은 사실대로 오해는 오해대로 그저 끝없이 발을 절뚝거리면서 세상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

그러나 나는 이 발길이 아내에게로 돌아가야 옳은가. 이것만은 분간하기가 좀 어려웠다. 가야 하나? 그럼 어디로 가나?

① 이때 뚜— 하고 정오 사이렌이 울었다. 사람들은 모두 네 활개를 펴고 닭처럼 푸드덕거리는 것 같고 온갖 유리와 강철과 대리석과 지폐와 잉크가 부글부글 끓고 수선을 펴고 하는 것 같은 찰나, 그야말로 현란을 극한 정오다.

나는 불현듯이 거드랑이가 가렵다. 아하 그것은 내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이다. 오늘은 없는 이 날개, 머릿속에서는 희망과 야심의 말소된 페이지가 덕서너리 넘어가듯 번뜩였다.

나는 걸던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어디 한번 이렇게 외쳐 보고 싶었다.

날개야 다시 돌아라.
날자.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꾸나.
한 번만 더 날아 보자꾸나.

- 이상, 「날개」 -

* 미쓰꼬시: 일제 강점기에 서울에 있었던 백화점 이름.
* 회탁의: 회색의 탁한.
* 아달린: 수면제의 일종.

40. 위 글의 서술적 특징과 효과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독백적인 어조로 현실과 단절된 의식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ㄴ. 단정적이고 객관적인 진술로 사건에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다.
ㄷ. 회상의 기법을 사용하여 현재와 과거의 회해를 지향하고 있다.
ㄹ. 비유적 표현으로 인물의 생각과 인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1. 일제 강점기에 미쓰코시 백화점은 서울에서 매우 높은 건물이 었다. 이 사실에 비추어 볼 때, [A]에서 ‘미쓰코시 옥상’이 가지는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로 하여금 내면적 성찰을 시도하게 한다.
- ② ‘나’에게 이전과는 다른 삶의 태도를 갖게 한다.
- ③ ‘회택의 거리’를 압축적으로 조감할 수 있게 한다.
- ④ ‘나’와 ‘회택의 거리’ 사이의 괴리감을 드러내 준다.
- ⑤ ‘회택의 거리’를 부자유와 체념의 공간으로 인식하게 한다.

42. ㉠에 관한 설명의 일부인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철학과 문학에서는 전통적으로 시간을 가리키는 말에 함축적인 의미를 부여해 왔다. 특히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정오’를 각성과 재생의 시간으로 간주했다. ‘정오’는 인식의 태양이 가장 높이 솟아오른 때라는 것이다.

- ① ‘나’의 의식 상태는 ㉠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볼 수 있겠군.
- ② ‘정오’의 사이렌 소리가 ‘나’의 생명력을 일깨운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정오’의 함축적 의미 때문에 ㉠을 경계로 어조와 분위기가 바뀐 것이겠군.
- ④ ‘나’는 ‘정오’가 되면서 자아의 문제에서 사회의 문제로 시선을 전환하게 되는군.
- ⑤ 이 작품은 시간의 물리적인 의미보다 심리적인 의미에 중점을 두고 읽어야겠군.

43. <보기>의 설명을 바탕으로 위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날개」는 현대 문명과 불화를 겪고 있는 지식인의 내면 세계를 ‘아내’와 ‘나’의 부조리한 관계에 빗대어 표현한 작품이다. 여기서 ‘아내’는 현대 문명을, ‘나’는 지식인의 내면 세계를 상징한다. 같은 맥락에서 이 소설에 나타나는 사물들과 사건들 또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 ① 도적질하거나 계집질한다고 ‘아내’가 ‘나’를 의심하면서 따지는 것은 지식인의 내면세계에 대한 현대 문명의 위협적인 힘을 의미한다.
- ② ‘나’가 아내 몰래 집에서 나온 것은 현대 문명의 구속에 맞서고자 하는 지식인의 적극적인 대결 의지를 의미한다.
- ③ ‘나’가 ‘아내’에게서 완전히 떠나겠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현대 문명과 결별하기 어려운 지식인의 의식 상태를 의미한다.
- ④ 자신도 모르게 아달린을 먹어 왔는지도 모른다는 ‘나’의 구심은 자기의 이성이 자신도 모르게 현대 문명에 길들여져 가는 데 대한 지식인의 두려움을 의미한다.
- ⑤ ‘나’의 머릿속에서 희망과 야심의 말소된 페이지가 번뜩인다고 한 것은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 의식을 회복하고 싶어 하는 지식인의 소망을 의미한다.

T+I.A (Topic + Information Architecture)
<날개> '이상'

구조	표면적 정보→(문학적관습)⇒이면적 정보 인물(+내면심리), 사건/갈등/장면, 서사
#1 인사배 set	아내와의 갈등 나의 태도 : 도망 나옴 나의 성격 : 나사 여럿 빠짐
#2 공간 배경 성찰	공간 배경 : 미쓰꼬시 백화점 옥상 성찰 금붕어 회탁의 거리 돌아가야 함 = 체념적 수용적 태도
#3 내적 갈등	아내, 나, 돌아가야하나? 방향, 내적 갈등
#4 시간 배경 성찰	시간 배경 : 정오의 사이렌 깨달음. 내게도 희망, 야심이 있었다. 잃어버린 희망과 야심을 찾길 희망. 날개, 날아보자 = 극복 의지
주제 = 정보까지 높은 내용 + 구조 feat. 평가원 출제자	

내면 서술 중심이 되면, 그 내면을 이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따라가기 벅찬 작품이 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화자의 내면이 이해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내는 너 밤새워 가면서 도적질하러 다니느냐, 계집질하러 다니느냐고 **말약이다** 이것은 참 너무 **억울하다** 나는 어안이 벙벙하여 도무지 **답이 떨어지지**를 **않았다**
 너는 그야말로 나를 **잘해하러**던 것이 아니냐고 소리를 한 번 **씩 질러** 보고도 싶었으나 그런 긴가민가한 소리를 선불리 입 밖에 내었다가는 무슨 화를 볼는지 알 수 있다. 차라리 억울하지만 잠자코 있는 것이 우선 상책인 듯싶이 생각이 들길래 나는 이것은 또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툭툭 털고 일어나서 내 바지 포켓 속에 남은 돈 몇 원 몇 십 전을 가만히 꺼내서는 몰래 미닫이를 열고 살며시 문지방 밑에다 놓고 나서는 **그냥 출달음박질을 쳐서 나와 버렸다**

여러 번 자동차에 치일 뻔하면서 나는 그래도 경성역을 찾아갔다. 빈자리와 마주 앉아서 이 쓰디쓴 입맛을 거두기 위하여 무엇으로나 입가심을 하고 싶었다.
커피. **술**. 그러나 경성역 홀에 한 걸음을 들여놓았을 때 나는 내 주머니에는 돈이 **한 푼도** 없는 것을, 그것을 깜빡 잊었던 것을 깨달았다. 또 **아팠**었다. 나는 어디선가 **그저 맥 없이** **머뭇머뭇**하면서 어쩔 줄을 모를 뿐이었다. **잃어버린** 사람처럼 그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1 초반부 인사배 set

아내와의 갈등
나의 태도와 반응 그리고 제시되는 성격과 내면심리

아내가 내게 억울하게 뭐라고 하지만
대꾸도 못하고
심지어 돈도 내놓고
도망쳐 나옵니다.
그리고 머뭇머뭇, 어쩔 줄 모릅니다.

인물 태도 성격

아내와의 갈등 ⇨ 회피
어쩔 줄 모름 ⇨ 방향

나는 어디로 어디로 들입다 **쫓다**냈는지 하나도 모른다. 다만 몇 시간 후에 내가 **미쓰꼬시** **회탁**에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거의 대낮이었다.
 나는 거기 아무 데나 주저앉아서 **내 자라 온 스물여섯** **해를** 회고하여 보았다. 몽롱한 기억 속에서는 이렇다는 아무 제목도 **불그러져** 나오지 않았다.
 나는 또 나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너는 인생에 무슨 욕심이 **있느냐고**. 그러나 있다고도 없다고도, 그런 대답은 하기가 싫었다. 나는 거의 나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기조차도 어려웠다.
 허리를 굽혀서 나는 그저 **금붕어**나 들여다보고 있었다. 금붕어는 참 잘들도 생겼다. 작은 놈은 작은 놈대로 큰 놈은 큰 놈대로 다 싱싱하니 보기 좋았다. 내리비치는 오월 햇살에 금붕어들은 그릇 바탕에 그림자를 내려뜨렸다. 지느러미는 하늘 하늘 손수건을 흔드는 흉내를 낸다. 나는 이 지느러미 수효를 헤어 보기도 하면서 굽힌 허리를 좀처럼 펴지 않았다. 등허리가 따듯하다.
 나는 또 **회탁의**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거기서는 피곤한 생활이 **뚝** 금붕어 지느러미처럼 **호느호느** 허비적거렸다. 눈에 보이지 않는 끈적끈적한 줄에 엉켜서 헤어나지들을 못한다. 나는 피로와 공복 때문에 무너져 들어가는 몸뚱이를 끌고 **그 회탁의 거리** 속으로 **섞여** 들어가지 않는 수도 없다 **생각**하였다.

#2 배경

미쓰코시 백화점 옥상 : 그 시대 가장 높은 곳
아마 자신을 성찰하고
시대정신을 읽기에 가장 적절한 상징적 장소 같습니다.

특이 소재 : 커피

앞 장면에서 '커피'도 사실은
자신의 정신을 명료하게 하기 위한 소재이지만
돈이 없어 그럴 수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특이 소재 : 금붕어

갑자기?
역시 상징적이죠.
시대정신 = 회탄의 거리
그곳에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니
무기력하고, 침전해가는 금붕어와 같은 자신의 모습

인물 - 태도 - 내면심리

성찰을 해보지만
답도 안 나오는 인생
금붕어 같은 인생

다져서 나는 또 문득 생각하여 보았다. 이 발길이 지금 어
디로 향하여 가는 것인가를…….
그때 내 눈앞에는 아내의 모가지가 벼락처럼 내려 떨어졌
다. 아스피린과 아달린*
우리들은 서로 오해하고 있느니라. 설마 아내가 아스피린
대신에 아달린의 정량을 나에게 먹여 왔을까? 나는 그것을
믿을 수는 없다. 아내가 대체 그럴 까닭이 없을 것이니.
그러면 나는 날밤을 새면서 도적질을, 계집질을 하였나? 정
말이지 아니다.
우리 부부는 숙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는 절름발이인 것이
다. 나나 아내나 제 거동에 로직을 붙일 필요는 없다. 변해할
필요도 없다. 사실은 사실대로 오해는 오해대로 그저 끝없이
발을 절뚝거리면서 세상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
을까?
그러나 나는 이 발길이 아내에게로 돌아가야 옳은가. 이것
만은 분간하기가 좀 어려웠다. 가야 하나? 그럼 어디로 가나?

#3 부부 갈등 ⇨ 내적 갈등

부부의 갈등을 보여주지만,
그것으로 촉발되는 화자 본인의 내적 갈등에 초점을
둡니다.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압도적 수능 국어 전문가.

계속되는 방향

① 이때 뚜— 하고 정오 사이렌이 울렸다. 사람들은 모두
네 활개를 펴고 닭처럼 푸드덕거리는 것 같고 온갖 유리
강철과 대리석과 지폐와 잉크가 부글부글 끓고 수선을 떨고
하는 것 같은 찰나, 그야말로 현란을 극한 정도다.
나는 불현듯이 거드랑이가 가렵다. 아하 그것은 내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이다. 오늘은 없는 이 날개, 머릿속에서는
희망과 야심의 말소된 페이지가 덕서너리 넘어가듯 번뜩였다.
나는 건넌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어디 한번 이렇게 외쳐
보고 싶었다.
날개야 다시 돌아라.
날자.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4 시간적 배경 전환, 화자의 의지

하지만 정오의 사이렌
갑자기 깨어남
드디어 깨닫습니다.
내게도 날개가 있었음이
희망과 야심이 있었음이
그것이 다시 돌아오기를 희망하며 소설은 끝납니다.

40. 위 글의 서술적 특징과 효과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보 기>
- ㄱ. 독백적인 어조로 현실과 단절된 의식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 ㄴ. 단정적이고 객관적인 진술로 사건에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다.
 - ㄷ. 회상의 기법을 사용하여 현재와 과거의 화해를 지향하고 있다.
 - ㄹ. 비유적 표현으로 인물의 생각과 인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주제 - 화자의 내면심리

당연히 ㄱ이 내면심리를 밀접히 다루니 정답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디테일을 잡습니다.

백인호 초격차 국어 파이널 | 3~4주차 문학 원론

ㄱ. 독백적인 어조로 현실과 단절된 의식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좁히고 발췌독

독백적 - 누군가와 대화 없고, 성찰, 내면심리
당연히 독백적

현실과 단절 - 성찰하는 과정이니 당연히

의식상태 표현 - 내면 심리 표출

정답 맞네요

ㄴ. 단정적이고 객관적인 진술로 사건에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다.

내적갈등을 하는데 단정적

내면심리인데 객관적

모두 틀렸습니다.

ㄷ. 회상의 기법을 사용하여 현재와 과거의 화해를 지향하고 있다.

회상이 있긴 합니다.

갈등-해소도 있긴합니다.

하지만

현재 : 아내와의 갈등

성찰 : 내 인생 뭐지? 회타의 거리. 금붕어 같은

반응 : 어떻게 하지? 방향

각성 : 나도 희망이 있었군. 날개야 다시 돌아라. 의지
화해 지향일까요?

아니면 과거와 같은 생동력 있었던 삶을 희망하는
것일까요?

주제, 정서를 잡아주시면 정확히 판단 됩니다.

ㄹ. 비유적 표현으로 인물의 생각과 인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문학이니 비유는 찾기 쉬울테고(금붕어)

생각과 인상. 주제이니 역시 정답!

41. 일제 강점기에 미쓰꼬시 백화점은 서울에서 매우 높은 건물이었다. 이 사실에 비추어 볼 때, [A]에서 '미쓰꼬시 옥상'이 가지는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까 보았듯이 특이한 배경.

의미부여로 이어집니다.

- ① '나'로 하여금 내면적 성찰을 시도하게 한다.
- ② '나'에게 이전과는 다른 삶의 태도를 갖게 한다.
- ③ '회타의 거리'를 압축적으로 조감할 수 있게 한다.
- ④ '나'와 '회타의 거리' 사이의 괴리감을 드러내 준다.
- ⑤ '회타의 거리'를 부자유와 체념의 공간으로 인식하게 한다.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정답 스펙트럼을 활용합니다.

0% **100% 정답**

←—————→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	----	----	----	----	----	----	----	----	----	-----

100% 백화점에 내가 있음

- ⇨ 성찰함
- ⇨ 금붕어 성격을 떠올림
- ⇨ 회타의 거리를 보게 됨
- ⇨ 회타의 거리 의미 부여, 나의 처지 성찰로 이어집니다.
- 그리고 마지막은
- ㉠ 정오의 사이렌 뒤에
- ⇨ 날개야 돌아라. 즉, 예전과 다른 삶의 태도

그렇다면,

정답에서 가장 멀리 있는 선지는?

네 2번. 정답.

물론 이에 대한 해설로

나서서 나는 또 문득 생각하여 보았다. 이 발길이 지금 어디로 향하여 가는 것인가를…….

여기서 '나서서' = (백화점을) 나서서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지역적이면서, 심지어, 생략되어 그 대상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기 힘든 내용이 무엇이었는데 찾아서 연결짓는 것은 당연히 한 단어로 결정되는 + 명시되지 않은 정보에 의존하는 과정에서, 발췌독, 있는 그대로 정보 찾기를 하는 대부분에게 가능한 접근일까요?

실수, 시간... 모든 것에서 손해이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저렇게 생략된 하나 하나의 정보 모두를 저 모든 지문
정보에서 찾을만한 시간은 되나요?

제발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리고 평가원에서 의도한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42. ㉠에 관한 설명의 일부인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철학과 문학에서는 전통적으로 시간을 가리키는 말에 함
축적인 의미를 부여해 왔다. 특히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정오'를 각성과 재생의 시간으로 간주했다. '정오'는 인식의
태양이 가장 높이 솟아오른 때라는 것이다.

- ① '나'의 의식 상태는 ㉠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볼 수 있겠
군.
- ② '정오'의 사이렌 소리가 '나'의 생명력을 일깨운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정오'의 함축적 의미 때문에 ㉠을 경계로 어조와 분위
기가 바뀐 것이겠군.

우리가 잘 읽었던
장면 전환, 그러면서 인물의 태도 변화

성찰. 방향. 체념. 무기력. 방향에서
날개가 돌기를 바라는 희망으로.
①②③ 선지 확인!

④ '나'는 '정오'가 되면서 자아의 문제에서 사회의 문제로 시선
을 전환하게 되는군.
내적 갈등이 계속되지, 사회문제?
정답이군요!
역시 정보가치 높은 '갈등'
초점 두어 읽었으면 편하게 처리 가능합니다.

⑤ 이 작품은 시간의 물리적인 의미보다 심리적인 의미에 중점
을 두고 읽어야겠군.

심리적 의미. 즉, 내면심리.
역시 정보가치 높은 '내면심리'
초점 두어 읽었으면 편하게 처리 가능합니다.

보기부터 보면 안 되나요?

수업 때도 수차례 말씀드렸듯이, 보기 의존하는
과정에서 피지킬 자체의 향상도 어렵고, 무엇보다
요즘은 보기 자체가 함정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문항
설계를 보기에 국한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기부터 보면
당연히 작품 해석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이제는
 많아졌습니다.

43. <보기>의 설명을 바탕으로 위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
지 않은 것은?

—<보 기>—
「날개」는 현대 문명과 불화를 겪고 있는 지식인의 내면
세계를 '아내'와 '나'의 부조리한 관계에 빗대어 표현한 작
품이다. 여기서 '아내'는 현대 문명을, '나'는 지식인의 내면
세계를 상징한다. 같은 맥락에서 이 소설에 나타나는 사물
들과 사건들 또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 ① 도적질하거나 계집질한다고 '아내'가 '나'를 의심하면서 따지
는 것은 지식인의 내면세계에 대한 현대 문명의 위협적인
힘을 의미한다.
- ② '나'가 아내 몰래 집에서 나온 것은 현대 문명의 구속에 맞
서고자 하는 지식인의 적극적인 대결 의지를 의미한다.
- ③ '나'가 '아내'에게서 완전히 떠나겠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
은 현대 문명과 결별하기 어려운 지식인의 의식 상태를 의
미한다.
- ④ 자신도 모르게 아달린을 먹어 왔는지도 모른다는 '나'의 의
구심은 자기의 이성이 자신도 모르게 현대 문명에 길들여져
가는 데 대한 지식인의 두려움을 의미한다.
- ⑤ '나'의 머릿속에서 희망과 야심의 말소된 페이지가 번뜩인다
고 한 것은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 의식을 회복하고 싶어
하는 지식인의 소망을 의미한다.

아내가 현대문명이었다?
라고 읽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① 도적질하거나 계집질한다고 '아내'가 '나'를 의심하면서 따지는 것은 지식인의 내면세계에 대한 현대 문명의 위협적인 힘을 의미한다.

보기 바탕

갈등으로 파악 가능.

역시 정보가치 높은 '갈등'

초점 두어 읽었으면 편하게 처리 가능합니다.

맞는 선지!

② '나'가 아내 몰래 집에서 나온 것은 현대 문명의 구속에서 고자 하는 지식인의 적극적인 대결 의지를 의미한다.

보기 바탕

갈등으로 파악 가능.

역시 정보가치 높은 '갈등'

초점 두어 읽었으면 편하게 처리 가능합니다.

정답이네요.

적극적 대결을 했으면 부부싸움 했겠죠.

소극적이니 억울해도 아무말 못하고

더 크게 싸울까 하고 싶은 말 다 참고

심지어 돈도 냅두고

도망치듯 나오잖아요.

적극적 대결의지? 없어요...

③ '나'가 '아내'에게서 완전히 떠나겠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현대 문명과 결별하기 어려운 지식인의 의식 상태를 의미한다.

④ 자신도 모르게 아달린을 먹어 왔는지 모른다는 '나'의 의구심은 자기의 이성이 자신도 모르게 현대 문명에 길들여져 가는 데 대한 지식인의 두려움을 의미한다.

⑤ '나'의 머릿속에서 희망과 야심의 말소된 페이지가 번뜩인다고 한 것은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 의식을 회복하고 싶어 하는 지식인의 소망을 의미한다.

보기 바탕

물론 애매합니다.

결별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있나?

이럴 때는 정답 스펙트럼 활용!

②번 선지 보다는 ③④⑤번 선지가 더 옳은 쪽에 가깝고

그러니 가장 잘못된 ②번 선지를!

이러면 또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② '나'가 아내 몰래 집에서 나온 것은 현대 문명의 구속에서 고자 하는 지식인의 **적극적인 대결 의지**를 의미한다.

⑤ '나'의 머릿속에서 희망과 야심의 말소된 페이지가 번뜩인다고 한 것은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 의식**을 회복하고 싶어 하는 지식인의 소망을 의미한다.

같은 말 아니냐는 의문을 갖습니다.

#1 인사배 도입 세팅

아내와의 갈등.

나는 억울함. 돈 놓고, 집 나와버림

⇨ 소극적. 체념적

#2 공간 배경 전환 ⇨ 장면/정보가치 높은 내용 전환

미쓰쓰시 백화점 옥상 ⇨ 성찰 ⇨ 노답 ⇨ 금붕어 + 회탄의 거리 = 나. 수용적

#3 내적갈등

그렇다고 돌아가긴 싫음

#4 시간 배경 전환 ⇨ 태도 전환

희망, 날개. 돌아라

보이지죠?

② '나'가 아내 몰래 집에서 나온 것은 현대 문명의 구속에서 고자 하는 지식인의 **적극적인 대결 의지**를 의미한다.

#1 인사배 도입 세팅

아내와의 갈등.

나는 억울함. 돈 놓고, 집 나와버림

⇨ 소극적. 체념적

⑤ '나'의 머릿속에서 희망과 야심의 말소된 페이지가 번뜩인다고 한 것은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 의식**을 회복하고 싶어 하는 지식인의 소망을 의미한다.

#4 시간 배경 전환 ⇨ 태도 전환

희망, 날개. 돌아라

당연히 정답 2번! 끝!